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서영숙

2015년 8월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Inclination on the Continuity of
Individual Donations

Seo, Young-Suk

(Direct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남 진 열

서 영 숙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서영숙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6월

목차

I.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및 과정	6
II. 이론적 배경	8
제1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8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14
제2절 문화성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1. 문화성향의 개념	21
2. 문화성향의 구성요소	25
제3절 기부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1. 기부의 개념 및 현황	29
2. 기부지속성의 구성요소	3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0
1.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40
2. 문화성향 관련 선행연구	43
3. 기부지속성 관련 선행연구	45
III. 연구설계	47
제1절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47

1. 연구모형 설정	47
2. 연구문제	48
제2절 측정도구	49
1.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49
2. 문화성향 측정도구	51
3. 기부지속성 측정도구	54
4.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구성	56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9
1. 자료수집	59
2. 분석방법	60
IV. 분석결과	6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제2절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	63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63
2.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인식 차이	64
제3절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68
1.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71
2.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73
3.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75
4.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77
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79
V. 결론	8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2
제2절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86
1. 사회적 자본 중심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86
2. 문화성향 중심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91

제3절 연구의 한계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13
부록: 설문지	117

표 목 차

<표 2-1>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주요 개념	25
<표 2-2>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32
<표 2-3>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	33
<표 2-4> 2010년~2014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유형별 모금액 현황	35
<표 3-1>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50
<표 3-2> 문화성향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52
<표 3-3> 기부지속성 평가지표	55
<표 3-4> 주요 변수의 구성	57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표 4-2> 조사대상자의 평가지표 기술통계량	63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65
<표 4-4> 응답자의 기부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67
<표 4-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70
<표 4-6>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72
<표 4-7>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74
<표 4-8>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76
<표 4-9>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78
<표 4-10>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7
(그림 3-1) 연구모형	47

【국문요약】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지역 사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기부가 기부 의도 및 기부 동기 등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와 같은 유무형 자본이나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부를 단순한 자선과 소극적 대인 서비스 차원으로 인식하여 개인적 요인, 동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변수를 설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부지속성 측정지표를 사회관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기부 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으로 세분하여 구성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지수와 Esser의 사회적 자본 구조도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화성향은 Singelis와 Triandis(1995)가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표준화한 4가지 문화성향(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타지역에 비해 개인 기부자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단일 행정구역으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독특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일반도민으로서 총 55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중 미회수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53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교일수록, 월평균가구 총 소득이 높

을수록, 정기적으로 기부할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거주지, 직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상부상조와 수놓음 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실천적 나눔에 대한 전통이 남아있어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기부금액 혹은 기부욕구가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요인 중 신뢰와 사회참여는 기부지속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규범은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규범의 척도는 지역사회주민의 규범준수 여부, 지역사회 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지역 내 의사존중과 반영여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청렴정도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기부가 사회규범 수준이 높고,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만 하는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성향 요인 중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는 기부지속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이타심이 발현가능성이 높으며, 기부행동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타적 나눔이라고 할 때, 집단주의 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김선우·김난도, 2010; 홍승범·박혜경, 2013)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일면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일면으로는 문화성향과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제3의 다른 요인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다 엄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동시에 투입하여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만 투입했을 때보다 기부지속성에 대한 설명력을

2.5%-4.2%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부지속의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즉 문화성향은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관점과 문화성향 관점에서 기부지속성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인과 문화성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부족하고, 기부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기부기관의 신뢰도 등의 변인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거 이타성과 이기성이라는 인간의 이원적 본성 즉 개인적 요인 중심의 연구를 넘어서 사회관계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신뢰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수직적 개인주의 및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인들과 개인의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임이 확인됨에 따라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문화성향,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I.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공동체의식¹⁾의 결여, 소득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갈등 증폭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고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과 조달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은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가용자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및 공공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박경수, 2010). 그 중에서도 공공복지의 목적과 자발성에 의한 물질 또는 시간 및 노력을 대가없이 주는 기부는 정부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다양한 기부참여 방법 중 개인 기부는 지역사회 내의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의식 향상 및 기부문화 활성화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박경수·김대원, 2012).

아름다운재단(2010)에 의하면, 2009년 개인에 의한 자선 기부는 약 6조 2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2.3%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GDP 대비 0.58% 수준에 해당된

1) 공동체의식(SOC: sence of community)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동일감 등과 같은 심리적 결속을 의미하며 공동체란 지리적, 공간적 단위인 지역사회를 공동체의 핵심으로 보기도 하고, 단순한 지역사회를 넘어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고 상호협력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장수지 외, 2014)

다. 이러한 기부금액의 추세는 우리 사회의 자선시장(philanthropy market)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²⁾이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수준은 GDP 대비 0.9% 수준으로 기부 선진국인 미국의 2.2%에 비해서는 2/5 수준에 불과하여 개인의 기부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전문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4)에 따르면 2014년 기부 총액 중 개인 기부금은 29.9%에 불과하며 기부의 형태도 정기적인 기부보다는 일회성 기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성과에서 기부액이 2012년 49억 7백만원에 비해 2014년 67억 5천5백만 원으로 약 18억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 기준 개인기부자는 전체 기부의 48.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기업이 적은 산업구조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달리 독특한 생활양식인 마을공동체와 수놓음³⁾, 켄당문화⁴⁾ 등과 같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무형의 자산 때문이다. 현재에도 제주지역은 수놓음 등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노동력 교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주민 간의 신뢰, 소모임 형태의 네트워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또는 기부대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최근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구성요소로서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퍼트남에 의하면 “1960년 이후 미국에서 기부금 하락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개별기부금 모집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

2) 실제 민간자원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개인 기부는 선진국의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전체기부 중 개인기부자가 70% 이상(Giving USA, 2009)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부규모나 참여 측면에서 개인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아름다운재단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

3) '수놓음'은 '품앗이'를 의미하는 제주어로 노동력 교환 의미에서는 두레나 품앗이와 유사하지만 운영형태는 다르며 제주공동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음.

4) '켄당'은 '돌보는 무리'라는 뜻인 '켄당(眷黨)'의 제주어 표기로 친족과 외척, 고종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 제주 방언임.

점보다는 보다 넓은 사회변동에 관한 설명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적절한 대답으로 보인다. 좋은 명분을 가진 많은 일에 미국인의 관대한 씀씀이가 높이 상승했던 시절이 지나면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은 계속 인색해 졌다. 그런데 이 현상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의 사회생활로부터 이탈했던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퍼트넘, 2000)고 하여 사회적 자본과 기부 및 자선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부 및 기부지속성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박희봉(2009)의 연구에서는 기부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일수록 사회적 자본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부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관훈(2011)의 연구에서도 기부경험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부경험에 따라 사회적 자본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기부금액의 결정 요인에 집중되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부와 관련된 기부의도, 기부행동, 기부태도, 기부참여, 동기부여 등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황창순·강철희, 2002; 조선주·박태규, 2007; 박태규 등, 2008; 김연수·이광석, 2011; 김영기, 2012; 박경수·김대원, 2012). 다행히 최근에 진행된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기부가 기관의 신뢰나 개인의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원준, 2012; 구지윤, 2013; 류방, 2013; 김연·김정우, 2014).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기부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자료이나 여전히 기부자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기부행위와 기부지속성 간에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김선우와 김난도(2010)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을 비교하면서, 기부는 선순환적인 사회구조의 유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친사회적 소비행동이고, 문화적으로 배태된 경제적 관행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

하여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Triandis(1988)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모습이 점차 변하며, 극도로 복잡한 사회에 이르기 시작하면 개인주의적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적 문화로 변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amamura, 2012)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로 인식되고 있지만(Suh, Diener & Updegraff, 2008; 곽금주, 2008 재인용), 한국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영지·이기학, 2011; 김양희, 2013).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들이 한국의 문화적 성향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규석·신수진, 1999; 박현경·이영희, 2004; 류승아, 2009, 2010; 김양희, 2013), 한국인의 전체적인 문화적 성향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부는 사회적 장려에 힘입어 의미 있는 문화로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강철희 외, 2010). 특히 개인의 기부활동은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즉 개인 기부자가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나눔 확산에 기여한다. 또한 개인기부문화가 확대되고 지속되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개발이 원활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가용자원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즉, 지역의 사회문제 발생 시 신속한 사회협력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Rosso(1991)는 새로운 기부자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부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기부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내

는 것이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이원준, 2012 재인용). 개인 기부시장이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한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관들이 개인들의 정기기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금모금 전문가들은 전략적 모금을 위해 비영리기관이 기부시장을 보다 표적화(targeting)하고 세분화(segmentation)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정정호·김미희, 2008).

무엇보다도 기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또는 기부대상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 사회참여가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이는 구성원이 속한 공동체적 가치체계, 신념체계 및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제주지역 개인 기부자의 기부특성을 파악하는 요인으로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성향을 반영하고자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부가 물질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의무감인 규범,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제주지역의 문화성향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개인기부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기부지속성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행정구역상 단일행정구역이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독특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 자본,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등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활용하였으며, 기부경험이 있는 일반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조사이다.

2. 연구 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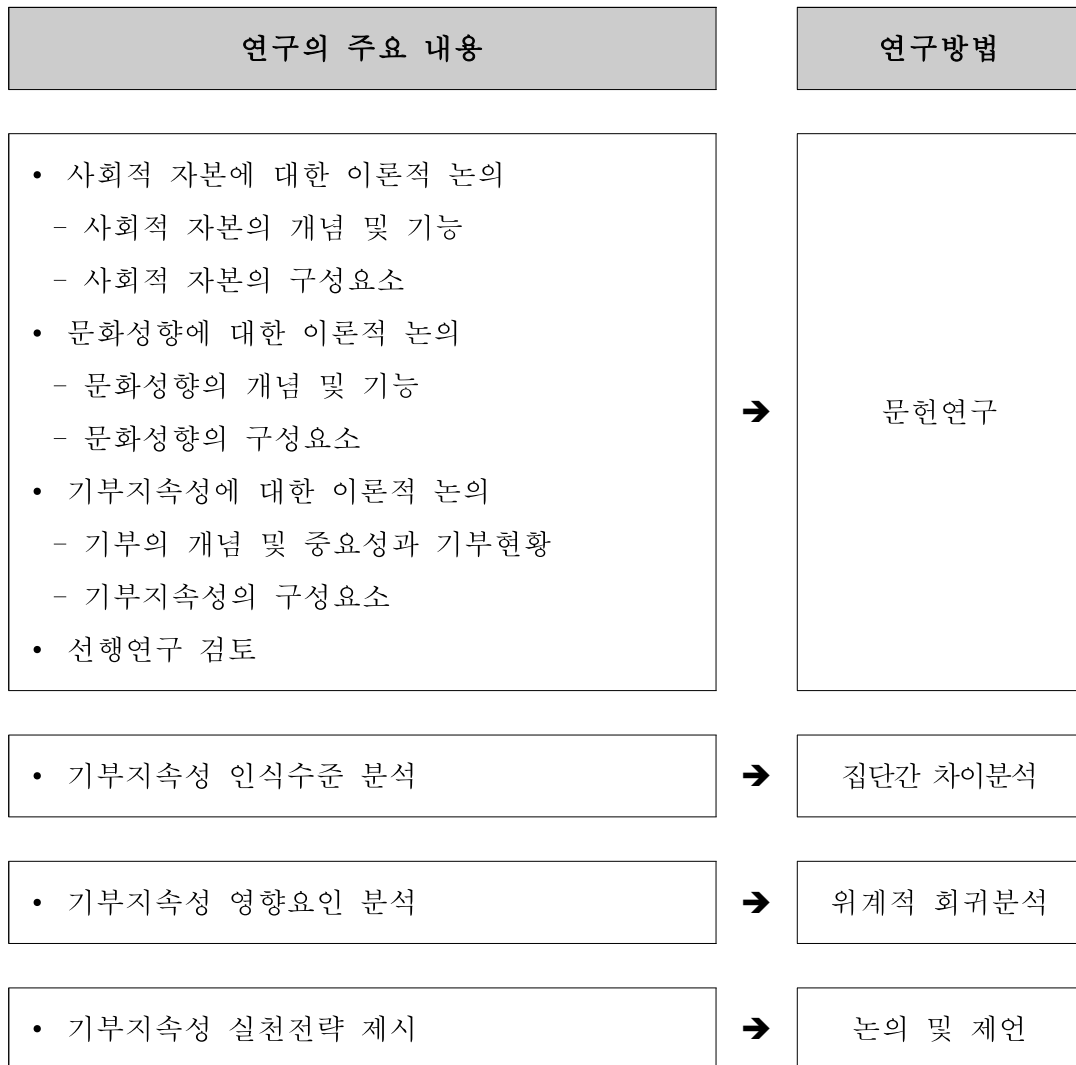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우선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부지속성에 대한 개념 및 기부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주요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실증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수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본 후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문헌연구 및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서 1835년 프랑스의 토크빌(Tocqueville)이 지역사회 수준(level of community)에서 지역사회 정신,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civic engagement), 공공재(common good)에 대한 개인적 책무와 소속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되었지만(안병일, 2009),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1916년 리다 허니판(Lyda F. Hanifan)이 쓴 “The Community Center”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적 자본을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자산으로 사회적 단위를 구성하는 개인들이나 가족들 간의 선의, 동료의식, 동정 그리고 사회적 교제 등을 일컫는다’고라고 하였으며, 가정, 지역사회, 조직 그리고 국가 수준의 다양한 체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Hanifan, 1916; 서순탁, 2001; 김종미, 2004 재인용).

이후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숙인 시민의식의 향상, 건강 및 복지의 향상, 지역사회 및 국가수준에서의 공동체 의식 향상, 지역개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사회적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학술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체계화한 것은 부르디외(Bourdieu)이지만,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김상준,

2004).

브로드외(Bourdieu, 1986)는 정책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학술적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자들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영역이 비교적 등한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외의 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부를 결정하는 화폐자본보다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한 사회의 문화적 표상과 수준을 결정한다. 즉, 문화적 자본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혹은 집단적 장과 그렇지 못한 주체, 혹은 집단적 장 사이의 문화적 구별 짓기를 시도한다(김동윤, 2009 재인용). 또한 브로드외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네트워크(network)’라고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자원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 집단이나 국가가 가진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그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한 각 개인들이 가진 잠재적 기회자원의 양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진관훈, 2011). 즉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회자원을 기부문화를 통하여 개발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콜맨(Coleman)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더 확장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자본에 수직적 성분을 도입하여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보다는 단체들 간의 관계에 더 주목해서 수평적 단체뿐만 아니라 수직적 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 때의 수직적 단체는 성원들 간의 위계적 관계와 동등하지 않은 권력분배의 특성을 나타낸다(김종미, 2004).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 그 누가 행위자 이견 간에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John, 2003).

퍼트남(Putnam)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McLean, Schultz & Steger, 2002; 진관훈 2011 재인용). 그리고 그는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 간의 수평적 단체 내 관계로 보았다. 이 개념은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자발적 시민참여와 네

트위크, 규범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들 간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연구에 있어 ‘신뢰’를 강조한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다른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른 자본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적 관계망 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뢰와 호혜성을 토대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발달된 규범과 사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즉, 정부, 정권, 사법체계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관계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공식화·제도화된 관계와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획득할 수도 있고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혜성을 기반한 신뢰와 집단의 사회규범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체 확립과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전통적 문화에 의한 사회규범은 다른 사람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줌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강한 상호호혜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한다(Putnam, 2000). 즉, 최근에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간자원

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부문화에 있어 기부자와 기관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긍정적인 순기능과 부정적인 역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적 활용을 확대시키는 한편 부정적인 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있도록 한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박희봉, 2009 재인용). 이는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가 집단내 활발한 정보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서면 계약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까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없을 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Putnam, 2000; 진관훈, 2011 재인용).

둘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정한다. 이 이론의 전제는 일정한 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사회적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집단적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John, 2003; 진관훈, 2011 재인용).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이루고 필요한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신분 또는 신망의 형태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특정한 네트워크의 구성원 자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들에 의해 행위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발휘되어 결국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사회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박희봉, 2009 재인용). 집단적 의사결정은 공공재와 시장의 외부효과 관리에 있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집단 의사결정이 사회 및 집단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면 효과적인 정치·경제·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Svendson & Svendson, 2004; 진관훈, 2011 재인용)). 한편으로는 집단 의사결정이 구성원의 사회규범으로 확립되고 규범이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제도적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인과 집단 이익을 보장할

때 구성원의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 공동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은 정부, 정권, 법의 지배, 법원 체제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 간의 복잡한 교환에 있어서 협동적인 해결을 위한 친밀한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소진광 외, 2006). 사회적 자본은 시민에게 집단적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집단적 문제점을 해결하려 할 경우,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면서 서로 협동한다면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서 집단적인 바람직한 행동으로 구성원들이 사회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도록 보장하는 힘을 갖춘 제도적 메커니즘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Putnam, 2000).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기능과 더불어 작용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다른 상황에서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접근을 차단하고 배제시킨다(박희봉, 2009). 즉,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그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인·외부인의 구분을 통한 강력한 집단결속은 타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외부 집단에 대해 낮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

둘째, 강력한 결속력과 공동체의 폐쇄성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over demand)를 유발하게 되어 구성원들의 성공을 가로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체나 집단에 참여는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순응(confirmity)을 요구한다. 대부분 작은 동네나 마을에서는 모든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있으므로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회통제 수준이 매우 높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므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을 모두 묶어주는 다면적(multiplex) 네트워크가 강력한 지역사회 생활과 지역사회 규범의

강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적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규범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Portes, 1998).

넷째, 사회적 자본의 생성은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며, 이 투자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비생산적이고 비용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에 의한 연계가 정보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계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별 효과가 없게 된다(Adler & Kwon, 2000; 박세경 외, 2008 재인용).

마지막으로 집단의 결속력(solidarity)은 주류사회(mainstream society)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대의 공통적 경험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개인의 성공이야기는 집단의 응집력을 침식하게 되어 결국 규범의 하향평준화(downward leveling norms)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규범의 하향평준화는 특정 집단이 외부의 차별에 의해 억제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주류사회에 대한 저항이 출현할 수 있게 되며 열등감(subordination)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제주지역은 역사적·지형학적 여건으로 인해 마을과 켄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에 기반한 수놓음 전통이 강하다. 마을마다 마을제, 용왕제, 각종 축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신뢰와 참여’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송성대(2001)는 전통적 제주사회의 특징을 개인의 자유와 자립적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과 상호의 공동체생활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체적 대동주의’(송성대, 2001)라고 하면서 전통적 제주사회는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놓음 등을 바탕으로 개체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개체적 대동사회’(송성대, 2001)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이탈감이나 무관심이 증대하게 되고 그 결과, 제주도민 간의 연대의식이 희박해 지고 있으며 상호부조 등의 사회 통합적 요소가 약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발지상주의 악영향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신뢰도가 낮으며 조직의 리더나 국

가의 지도자, 기업의 고용주를 믿지 못해 생겨난 문제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고유의 공동체적 가치추구 보다는 성과 위주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됨으로 인해 믿음과 나눔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있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측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퍼트남(2000)은 ‘지역사회 또는 조직생활’, ‘공공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비공식적 사회성’, ‘사회신뢰’ 등을 측정변수로 들고 있으며(Putnam, 2000), Narayan과 Cassidy(2001)도 ‘신뢰’를 중요한 사회적 자본 요소로 정의내리면서 ‘일반화된 규범’, ‘집단성격’, ‘협력’, ‘일상생활 사회성’, ‘이웃과의 관계’ 등 6가지 항목을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를 가족 신뢰, 이웃 신뢰, 다른 인종/계층 신뢰, 사업가 신뢰, 정부 공무원 신뢰, 판사/법원/경찰 신뢰, 정부 서비스 제공자 신뢰, 지방정부 신뢰 등 8가지 항목을 세부측정요소로 사용하였다(박세경 외, 2008 재인용).

다음으로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Stone(2001)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측정요소로 가정(핵가족), 넓은 의미의 가족(대가족), 친구, 지인, 이웃을 들고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 측정요소는 집단과 관계없는 시민사회 관계 즉, 개인적 지역사회관계 또는 정치관계에 기초한 집단, 출생 관계, 아동보호, 교육, 스포츠, 여가, 음악, 예술, 교회, 자선단체, 자원봉사, 자조 등과 업무에 기초한 네트워크(단체, 제도, 국가) 등 10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홍영란 외, 2007 재인용). 세계은행(World Bank, 2002)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집단과 네트워크, 신뢰

와 단결성, 집단적 활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전달, 사회적 응집성과 포용력, 권한과 정치활동 등 6개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최영출 외, 2006 재인용). 또한 Grootaert & Bastelare(2002)는 지역사회 내의 사업이 직접적으로 귀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이 사업을 위해 시간이나 자금 면에서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측정하기도 하였다(진관훈, 2011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정의한 Rohe(2004)는 그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및 효과적인 집단활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의 개념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다양성, 네트워크 위치, 유대관계의 친밀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목적 등 5가지 항목을 측정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뢰’는 다른 주민들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최영출 외, 2006 재인용).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규범, 신뢰, 집단내 협력, 정보공유, 정치참여, 수평적 단체, 수직적 단체, 자원봉사 참여 등을 제시하였고, 소진광(2003)은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등 5가지 항목을 들고 있으며, 정기환 외(2006)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 등 4가지 항목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들고 있다. 이어 홍영란 외(2007)는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등을 들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에서는 사회적 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등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9)에서는 퍼트남(2000)의 사회적 자본지수와 Esser(2008)의 사회적 자본구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구조’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World Bank(2004, 진관훈 재인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강조하는 ‘참여’를 구성요소로 추가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1) 신뢰(trust)

‘신뢰’란 ‘타인이 행위를 할 때 나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배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John, 2003; 진관훈, 2011 재인용). 소진광(2008)에 의하면 신뢰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대한 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하며 감시와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신뢰는 사회적 안정, 사회적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 및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이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 혹은 사회 일각에서 신뢰가 충만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이며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있다(Fukuyama, 1995; 진관훈, 2011 재인용).

구체적으로 신뢰는 ‘배경적 기대’(background expectation)와 ‘구성적 기대’(constitutive expectation)로 구분된다. 배경적 기대는 집합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표준화된 신호와 약호규칙에 의해 창조된 ‘일상생활의 태도’를 말한다. 이는 시각의 호혜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인식하는 개인과 조직 이전에 수립된 사회적 사실들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 동일한 해석 틀을 사용하고 사건들을 동일한 전형적 방식으로 본다고 가정한다. 구성적 기대는 자기이해 관계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안적인 행위들이 개인 또는 조직의 욕망, 환경, 계획, 이해관계, 선택의 결과에 상관없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최종렬, 2004).

신뢰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신뢰와 공공에 대한 신뢰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초기반으로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Zucker(1986)는 신뢰를 첫째,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신뢰’ 둘째, 개인과 개인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초한 신뢰’ 셋째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신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선행연구와 관련해 살펴보면, 브로드외는 ‘특성에 기초한 신뢰’에 중점을 뒀고, 콜만은 ‘과정에 기초한 신뢰’에 가까우며, 퍼트남은 ‘제도에 기초한 신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Zucker의 신뢰범주를 모두 포함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설문지의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신뢰’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에 대해 물었고, 둘째 ‘과정에 기초한 신뢰’로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시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각급 공무원에 대해 물었으며, 셋째 ‘제도에 기초한 신뢰’는 우리나라의 법 및 제도,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했다.

2) 사회규범

사회적 자본 차원에서의 규범 준수는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이어야 하며,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은 구성원 간 책임의식을 증진시켜 사회협력 수준을 높인다(John, 2003).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은 장기적으로, 관계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상황을 말한다. 즉, 당사자들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따라서 호혜성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신뢰 없이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호혜성은 개인들과 집단 목적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제한된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한된 호혜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은 주고 돌려받는 기제의 균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박숙미, 2002). 제한된 호혜성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돌아오며 어쩌면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써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에 반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

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이러한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호혜성의 실패로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범준수는 호혜성에 기초한 사회규범이어야 한다(한상미, 2007). 즉,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법률이나 조직의 규칙 등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것(Putnam, 2000)을 의미하며, 내가 남에게 한 일이 향후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기에서 생겨나는 행동규범(비공식적 규범과 공식적 법질서 준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규범을 측정하기 위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의 규범(법과 질서)준수 여부’, ‘지역사회 단체간 상호협력 정도’, ‘지역 내 갈등 및 문제 자체 해결 정도’, ‘지역 내 공공부문의 청렴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 내 민간부문의 청렴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 자치단체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인식’, ‘지역 내 각종단체, 기관, 조직들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사회참여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주요지표인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와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를 강조하였다. 참여는 지역사회의 모든 모임과 취미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적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주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높은 공익 지향적 정치형태, 높은 정치의식 등은 정부신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보다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요소와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박희봉·김명환(2000), 소진광(2003), 그리고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참여 또는 참여기회,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시민참여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당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전문가로서의 시민이 그 정책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의

직접적·자발적·실질적 의사반영이 핵심적 요소이며, 더불어 타협과 조정할 줄 아는 자세가 사회의 원동력이 된다(이달곤, 2005).

특히 지역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선거참여’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순수한 ‘주민참여’가 있다(소진광, 2008). 또한 이달곤(2005)은 여러 기준에 따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개별참여와 집단참여,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구분하고 공식적 참여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World Bank (2004)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를 위해 ‘공식적인 자발적 집단에의 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에서도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과 함께 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참여로 시민단체·정치단체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토론회 참여를 문항으로 설정했고, 간접참여로 봉사단체·종교단체·친목단체·직업단체와 지역행사 및 봉사활동 참여 등을 모두 반영했다.

4)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계(linkage), 교류(association) 또는 구조화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참여(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f network)의 의미를 포괄한다. ‘네트워크’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 간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체계이며 교환형태는 일반적 상호작용 형태의 맥락 내에서 무한하고 연속적인 거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또한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논의에 있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네트워크는 몇 가지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이동원, 2009).

첫째,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계체계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이다. 둘째,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과 호혜성이 강조되며 행위자 간 관계의 맥락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개별조직은 자신의 고유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가 강조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속성론적 접근방법(generic approach)이고 둘째, 발생학적 접근방법(embryology approach)이다. 속성론적 접근방법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속성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교량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결속형 네트워크가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혈연, 지연 등의 사회적 자본 형태라면 교량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다(Putnam, 2000).

둘째, 네트워크에 대한 발생학적 접근방법으로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메커니즘이라고 바라보는 접근방법이다. 이 네트워크를 발생적 측면에서 보면 맹아적 네트워크(germing network), 귀속적 네트워크(possession network), 성취적 네트워크(achievement network)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변수를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보공유 정도’,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 여부’,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과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정도’,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의 정보 제공 정도’, ‘지역사회 주민들 간 의사소통 정도’, ‘6개 사회단체(종교, 교육·예술·문화, 스포츠·여가, 노조, 정당, 전문협회) 가입정도’ 등이다.

제2절 문화성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문화성향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개인 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개념적 틀을 적용한 문화성향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장수지, 2014)

많은 비교문화 학자들은 개인의 자아(self)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방식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성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Triandis, 1989; Markus & Kitayama, 1991; 류승아, 2010; 표정민, 2014 재인용).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적 성향의 구분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뉘는 이분형 분류이다. 이 개념은 Triandis(1988)가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이후 Markus와 Kitayama(1991)가 해당 문화 속에서 각 구성원이 갖는 자기개념(self)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독립적 자기관리(independent self-control)와 상호 협조적 자기관리(interdependent self-control)로 표현하면서부터 여러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인 행동의 틀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한민 외, 2009).

최근 비교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중 하나는 집단 간 비교 이외에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식, 2011). 그러나 문화집단 간 비교 방식은 제 3의 외부 변수에 의한 영향이 문화의 영향으로 잘못 해석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가 높은 한국에 비해 개인주의가 높은 미국에서 이혼율이 높는데 두 문화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추정하면 마치 개인주의 영향으로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참여 여부이나 산업화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개인주의가 이혼을 증

가시키는 데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김정식, 2011).

따라서 문화적 성향을 개인이 속한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의 다른 문화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비교문화 연구에 사용이 되어져 왔던 것을 한 국가 내에서의 분산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과의 비교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2차원적 접근은 문화를 세분화해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Markus와 Kitayama(1991)는 이론에 기초한 문화적 성향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양과 서양 간의 차이가 약하거나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으며, 낮은 신뢰도의 문제와 개념의 광범위성 문제가 나타났다(Triandis, McCusker & Hui, 1990;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표정민, 2014 재인용). 따라서 보다 세밀하고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 성향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Singelis의(1995)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문화 분류에 수평-수직의 차원을 도입하여 확장시킨 4요인 개념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개인주의적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개인으로 바라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Markus와 Kitayama가 제시한 상호 독립적-상호 협조적 자아와 같은 정의이다. 둘째, 집단주의자들의 개인적 목표는 집단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이가 난다면 집단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주의자들의 목표는 집단의 목표와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만약 차이가 난다면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집단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규칙과 의무, 그리고 책임에 의해서 나타나며,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개인적 태도(attitude)와 내적 과정(internal processes),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손해가 이익보다 크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개인주의자들은 그러한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1)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in-group)의 한 양상(aspect)으로 여긴다. 즉, 자신의 자아를 내그룹 구성원들 중 하나로 여기며, 내집단의 모두가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아는 사회 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타인과 같다고 생각하고 평등(equality)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한다.'라는 문항은 수평적 집단주의를 측정할 수 있다.

2)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in-group)의 한 양상(aspect)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지위(status)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아는 상호의존적이며 타인의 자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편익(inequality)이 존재하며 각자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 간에는 상호 의존도가 높으며,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자신과 가까운 이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 집단주의 맥락에 속한 사람들,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협동, 상호성, 주변사람에 대한 관심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나타내므로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라는 문항은 수직적 집단주의를 측정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in-group)의 한 양상(aspect)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지위(status)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아는 상호의존적이며, 타인의 자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편익(inequality)이 존재하며, 각자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3)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자율적인 자아(autonomous self)가 존재하지만 지위(status)에서는 타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아는 독립적이고 타인의 자아와 동등하게 여겨진다.

북미 및 서구 유럽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자기가 강조된다. 사람들은 개인적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며, 타인과의 관계역시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여긴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자율적인 자아(autonomous self)가 존재하지만, 지위(status)에서는 타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아는 독립적이고, 타인의 자아와 동등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문항은 수평적 개인주의를 측정할 수 있다.

4)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자율적 자아가 존재하며 타인의 자아와는 다르게 편익(inequality)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아는 독립적이고 타인의 자아와 차이가 있으며 경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 혹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 혹은 상황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관심의 초점을 타인이나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두므로,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홍승범·박혜경, 2013). 수직의 개념은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함을 뜻하는데 비해, 수평이란 용어는 대인관계에서 평등적 교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항은 수직적 개인주의를 나타낸다.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 구분은 Fiske(1992)가 제시한 문화적 패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Triandis(1995)는 언급하였으며, Rokeach(1973)의 정치적 체계 분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Rokeach(1973)의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주요개념은 <표 2-1>과 같다.

<표 2-1> 수평-수직 문화적 성향의 주요 개념

구분	수평	수직
집단주의	상호의존적 자아 평등 구성원이 동일 예) 이스라엘 집단농장(키부츠)	상호의존적 자아 위계(지위) 존재함(차별성 인정) 지위에 따른 편익(inequality)인정 봉사, 희생 예) 인도 카스트제도
개인주의	서로 독립적 및 자율적 지위적으로 동일 예) 스웨덴 사회주의	서로 독립적 및 자율적 위계(지위) 존재함(차별성 인정) 지위에 따른 편익(inequality) 인정 타인과 경쟁 중요 예) 미국 경쟁적 자본주의

출처 : Rokeach, 1973

문화적 성향 구분의 개인-집단주의의 이분형 구분으로 진행되어왔던 이유는 초기 Triandis(1988)가 문화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구분을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서양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기에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왔다(Markus & Kitayama, 1991). 하지만 서양의 관점에서 제시된 자신의 집단(서양)이 아닌 집단을 모두 집단주의로 구분한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되기도 하였다(Levine, et al. 2003; 한민 외, 2009; 김양희, 2013 재인용).

이에 김기범(1996)은 Singelis 외(1995)가 제시한 수직-수평 문화적 성향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류승아(2010), 김정식(2011), 김양희(2013) 등 최근까지도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2. 문화성향의 구성요소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적 틀이다. Triandis(1995)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자기(self)의 특성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의 정의는 개별적인 개체로서 자율적이고 상호독립적인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목표설정의 우선순위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할 때 개인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집단 목표와 양립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만약 그것이 충돌하게 되면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한다. 셋째, 집단규범 및 개인의 태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보다는 개인의 태도가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을 더 중시한다. 넷째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를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s)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를 공공관계(communal relationships)로 보고 그 특정 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Mills & Clark, 1982).

이와 같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간의 차이는 문화에 따른 중심 가치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Kitayama, et al., 1997).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성”이 중심가치이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 개인 고유의 가치, 목표, 통제, 자기주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 내지는 “상호 협조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내집단 관계 내에서의 상호공감, 자기억제, 협동, 양보를 통해 집단구성원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북미 및 서구 유럽으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문화와 동아시아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각 문화의 중심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각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Singelis, et al.(1995)는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분에 더해 동일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내 사람들 간의 평등이나 경쟁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직성(vertical)-수평성(horizontal)”의 개념을 추가하였다(김정덕·모경환, 2011). 수직성은 상하관계에서 불평등을 수용하고 서열과 위계를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수평성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수직적 개인주의(VI)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수직적 집단주의(VC)는 개인을 집

단의 일부분으로 보고 집단구성원들 간에 상호의존적이나 서로 다르다고 여기며,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한다. 수평적 집단주의(HC)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보지만 집단구성원들을 서로 평등하다고 여기고,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며 협동과 관계를 중시한다(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1995).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집합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가치체계와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한편, 개인적 수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 집단주의적 성향의 문화성향 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일 문화 내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개인차가 존재하는데(Plaut, Markus, & Lachman, 2002; Conway, Sexton, & Tweed, 2006), 이는 한 문화 내에서도 개인마다 자신의 문화에서의 중심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고 수행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홍승범·박혜경, 2013 재인용). 따라서 한 개인 안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공존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자 내지는 집단주의 성향자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의 문화성향 및 가치관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주의 성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집단주의 성향도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인의 가치관이 매우 복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은영과 차유리(2010)는 20~50대를 대상으로 1979년, 1998년, 2010년의 가치관 조사를 비교한 결과 지난 30년간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 등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그와 동시에 연령 등에 의한 상하구별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갖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덕웅과 이경성(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에서 1970~2002년의 약 30년간의 13개 가치관 순위의 변화를 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동’이 줄곧 1순위를 차지하여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기통제성과 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선호가 점차 강해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는 30년에 걸쳐 거의 순위 변동이 없이 4~5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집단주의 가치관의 선호와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존

제한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이기 때문에 위계적(수직적)이고, 상호협조적인 집단주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2008; 오현숙·민병배, 2008). 그리고 산업화와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김양희, 2013). 이런 혼합된 사회문화적 가치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언어를 비롯한 생활양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제주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화성향이 사회적 자본과 기부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절 기부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부의 개념 및 현황

1) 기부의 개념

기부란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물적·시간적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복지의 목적과 자발성을 함께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선과 박애를 포함한다(박경수·김대원, 2012). 기부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는 ‘Giving’, ‘Charity’, ‘Philanthropy’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는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Giving(호기있는)’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Charity(자선)’는 라틴어 caritas(혹은 carus: 형제애)로부터 유래되었고, ‘Philanthropy(박애)’는 그리스어 philo(사랑)와 anthropos(인류)의 합성어에서 연유되었다(Trattner, 1992; 이원준 2012 재인용). 이러한 기부는 기부자의 참여형태에 따라 기관의 재정 및 물적 자원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해주는 ‘물질적 기부’와, 시간을 내어 기관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즉 ‘시간적 기부’로 분류할 수 있다(정수영, 2005; 유수진, 2000).

Payton(1983)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각자가 소액을 기부하여 각 개인들의 기부가 거대한 다수의 기부로 조직(기관)에 모아질 때, 수혜자(recipients)를 두고 생각해 보면 자선을 넘어 박애로 연결된다고 피력하였다. 사적 목표보다 공공의 목표와 비영리를 토대로 많은 모금을 하는 비영리 조직(independent sector)은 어떤 통제도 없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움직이므로 사적(private)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비영리 영역에 모든 자발적/임의 기부 조직체

(voluntary organizations)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민간 재단, 그리고 교육적, 종교적, 과학적 그리고 기타 공공의 선(public good)에 기여하는 비영리 활동들에 참여하는 조직체들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등이 '박애'를 구현하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ayton, 1983).

기부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또는 후원자로서 개인기부자,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 나누어지며 개인기부자는 현재 기부자와 잠재 기부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 모두가 기부자라 할 수 있다.

현재 기부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기에 따른 분류로서 자존욕구 기부자,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부자, 질병공포에 의한 기부자, 습관적 기부자, 억지 기부자(nuisance giver), 기부요청에 의한 기부자, 동정 기부자(captive giver), 사해동포주의 기부자, 박애주의 기부자로 구분된다(Kotler, 1982).

둘째, 참여정도에 의한 분류로서 적극적(responsible) 기부자, 소극적(responsive) 기부자, 수동적(compulsion) 기부자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부자 집단은 각각 1/3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eymour, 1966).

셋째, 나이에 의한 분류로서 초기연령(early years) 기부자(50세까지), 중간연령(middle years) 기부자(50세에서 70세까지), 후기연령(later years) 기부자(70세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Sharpe, 1994).

그 외에도 미국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개인 기부자가 \$100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 중요한 기부자로 간주하기도 하며, 어떤 기관은 \$5,000부터 중요한 기부자로 보기도 한다(Flanagan, 2000). 특히 우리나라의 모금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부자 분야별로 개인기부자, 기업기부자, 기부하는 형태에 따라 현금기부, 물품기부, 재능기부, 시간제기부, 자원봉사,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일반기부, 지정기부, 후원자의 결연유무에 따라 결연후원, 일반후원 등으로 분류된다.

2) 개인기부의 중요성 및 현황

개인의 기부는 소규모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도 접근하기 쉽고, 활성화 될 경우 무한히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민간자원동원에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복지의식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동안 개인기부에 대한 연구들(오혜진 2002; 고이경 2004; 정수영 2005; 이희정 2006; 송정민 2008; 전지연 2008; 최은숙·이석호 2011)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기부자 특성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기부의 동기에 대해 다루는 것에서부터(강철희 외, 2012; 김지혜·정익중 2012), 특정단체의 기부자들의 특성(김주원·김용준, 2008), 또는 기부중단자의 특성(정정호·김미희,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 되어 왔다.

실제 개인들의 기부행위는 비영리조직이 기부자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Radley & Kennedy, 1995; Desmet & Feinberg, 2003).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부자의 특성에 대해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무엇보다 기부를 통해 수혜를 받는 대상 집단 또는 비영리조직의 활동, 특히 모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내·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Sargeant & Woodliffe, 2007; 이원준, 2012 재인용).

특히 나이, 성별,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이전의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과거의 경험은 조직이 실제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효과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나 비영리조직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 또는 직접적인 기부 요청 방식 등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활동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노연희, 2011).

따라서 비영리 조직에서의 자원동원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개인적 동기나 특성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부를 하는가, 즉 실질적인 기부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과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Hibbert & Horne, 1996; 류방, 2013 재인용).

또한 개인기부자들의 기부동기가 단순하지 않으며 개인기부자들은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무엇인가 기부의 대가를 얻고자 한다(Sargeant 1999). 일부 개인기부자들은 기부를 할 때 익명을 요구해 오지만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관에서는 기부금 사용처를 기부자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차후 재 기부를 받는데 용이하다. 비영리기관에서의 기부금

확충은 기관 내의 직원들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만족과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4년 개인모금 비율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모금 30%이상이 9개 지역이며, 20% 미만인 지역도 2곳이나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기부액이 전체 기부액의 36.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5위로 나타났다.

<표 2-2>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전체	96,355,817,241 16.5	408,749,861,959 70.1	78,183,337,294 13.4	583,289,016,494 100
중앙	11,964,473,238 3.9	278,148,381,880 91.2	14,773,980,914 4.8	304,886,836,032 100
서울	21,276,976,470 32.7	26,511,360,198 40.8	17,245,018,062 26.5	65,033,354,730 100
부산	4,423,002,061 24.2	9,841,797,617 53.9	4,004,740,788 21.9	18,269,540,466 100
대구	5,066,429,736 36.6	6,430,998,919 46.5	2,333,618,703 16.9	13,831,047,358 100
인천	3,931,537,689 26.7	9,023,119,449 61.4	1,752,769,503 11.9	14,707,426,641 100
광주	2,686,680,338 41.1	2,938,075,879 45.0	908,870,258 13.9	6,533,626,475 100
대전	3,809,395,388 41.4	4,212,891,261 45.8	1,174,978,645 12.8	9,197,265,294 100
울산	2,211,703,720 22.9	6,722,279,958 69.6	724,895,966 7.5	9,658,879,644 100
경기	11,309,238,100 26.5	20,423,884,330 47.8	11,020,273,498 25.8	42,753,395,928 100
강원	3,394,410,965 33.5	3,397,765,586 33.5	3,347,408,820 33.0	10,139,585,371 100
충북	3,208,852,507 36.1	4,009,182,826 45.1	1,675,463,486 18.8	8,893,498,819 100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충남	3,203,911,424	9,422,918,742	4,846,190,742	17,473,020,908
	18.3	53.9	27.7	100
전북	3,410,404,904	3,548,190,909	2,550,263,498	9,508,859,311
	35.9	37.3	26.8	100
전남	3,470,345,248	6,470,852,036	3,296,900,848	13,238,098,132
	26.2	48.9	24.9	100
경북	4,866,653,929	6,329,976,101	5,285,198,077	16,481,828,107
	29.5	38.4	32.1	100
경남	5,432,185,670	7,032,078,032	2,178,926,152	14,643,189,854
	37.1	48.0	14.9	100
제주	2,441,223,514	3,464,592,166	849,972,869	6,755,788,549
	36.1	51.3	12.6	100
세종	248,392,340	821,516,070	213,866,465	1,283,774,875
	19.3	64.0	16.7	100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위의 <표 2-2>는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기부액 비중인 반면,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1,106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기부실적이 가장 낮은 경기도는 123만의 도민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60만의 도민이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개인기부자를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나눔문화의 저변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3>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

연번	구분	인구수(명)	모금목표액(원)	모금실적(원)	달성율(%)	1인당 기부실적	
						기부액(원)	순위
1	전국	51,342,881	500,000,000,000	583,289,016,494	116.7	11,361	-
2	중앙	-	241,000,000,000	304,886,836,032	126.5	-	-

연 번	구 분	인 구 수 (명)	모 금 목 표 액 (원)	모 금 실 적 (원)	달 성 율 (%)	1인당 기부실적	
						기 부 액 (원)	순 위
3	서울	10,104,515	64,210,000,000	65,033,354,730	101.3	6,436	7위
4	부산	3,517,898	14,510,000,000	18,269,540,466	125.9	5,193	12위
5	대구	2,492,658	12,470,000,000	13,831,047,358	110.9	5,549	11위
6	인천	2,904,876	11,570,000,000	14,707,426,641	127.1	5,063	14위
7	광주	1,476,891	6,460,000,000	6,533,626,475	101.1	4,424	15위
8	대전	1,531,287	8,570,000,000	9,197,265,294	107.3	6,006	9위
9	울산	1,167,232	10,090,000,000	9,658,879,644	95.7	8,275	3위
10	경기	12,366,711	36,720,000,000	42,753,395,928	116.4	3,457	17위
11	강원	1,543,640	9,850,000,000	10,139,585,371	102.9	6,569	6위
12	충북	1,578,531	8,700,000,000	8,893,498,819	102.2	5,634	10위
13	충남	2,063,050	17,150,000,000	17,473,020,908	101.9	8,470	2위
14	전북	1,871,018	11,020,000,000	9,508,859,311	86.3	5,082	13위
15	전남	1,904,220	10,640,000,000	13,238,098,132	124.4	6,952	5위
16	경북	2,699,275	16,170,000,000	16,481,828,107	101.9	6,106	8위
17	경남	3,351,038	13,930,000,000	14,643,189,854	105.1	4,370	16위
18	제주	608,325	5,970,000,000	6,755,788,549	113.2	11,106	1위
19	세종	161,716	970,000,000	1,283,774,875	132.3	7,938	4위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10년에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유형별 모금액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기부자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에 개인모금액은 27.3%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45.3%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에 개인기부자가 9.3% 감소한 이유는 직장인 모금사업이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법인모금액이 2014년에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계기업이 기부하여 늘어난 것이고, 사회단체, 각종모임 등에서 기부하는 기타모금액의 경우, 개인 기부를 늘여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2-4> 2010년~2014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유형별 모금액 현황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2010년	858,853,921	1,447,048,558	844,253,743	3,150,156,222
	27.3	45.9	26.8	100
2011년	1,271,003,494	1,908,808,971	628,136,089	3,807,948,554
	33.4	50.1	16.5	100
2012년	1,807,905,494	2,338,608,982	761,398,702	4,907,913,178
	36.8	47.6	15.5	100
2013년	2,538,160,802	2,134,580,392	922,495,652	5,595,236,846
	45.4	38.1	16.5	100
2014년	2,441,223,514	3,464,592,166	849,972,869	6,755,788,549
	36.1	51.3	12.6	100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 기부지속성의 구성요소

지속성이란 ‘일정한 기간 성향이나 정해진 시기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유용식·손호중, 2009). 기부에 대한 지속성은 일정기간 동안 기부지속의향을 의미하며, 정기적 기부, 기부지속성, 기부 정기성, 기부 충성도, 관계지속의도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박경수·김대원, 2012; 류방, 2013). 기부를 지속시키는 영향요인으로 강철희와 주명관(2007)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종교활동, 학력, 결혼상태와 같은 일반적 특성과 타인에 대한 동정적 마음, 세금공제와 같은 이기적 동기, 자원봉사 경험 및 활동, 기관에 대한 신뢰, 개인의 사회문제 관심 그리고 기관의 적극적 모금활동과 같은 심리사회 및 행동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기부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윤용근(2004)은 기부의도를 측정하는 하위지표로서 삶의 보람, 기분, 기부 권유, 기부의향을 설정하였고, 류방(2013)은 기부자의 기부지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 정기성, 지속적 관심, 지속적 참여, 미래 지속성, 기부 재행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원준(2012)은 기부지속성의 하위변인으로 관계지속, 기부계속, 증액의도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변수요인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기부지속성 측정변인으로 ‘기부회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으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기부를 단순한 자선과 소극적 대인 서비스 자원으로 인식하여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동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변수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지역사회 구조와 행위를 촉발하는 사회적 자본의 관계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부지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1) 기부횟수

기부횟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 기부자들에 있어 기부금액의 발표유형과 자신의 지위를 알리는 이미지로서 체면은 기부횟수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Glazer & Konrad, 1996; Harbaugh, 1998; 이원준, 2012 재인용). 이를 뒷받침하듯 강철희(1998)는 기부행위는 55세-65세까지는 기부회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사회생활에서의 체면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Shelly & Polonsky(2001), 김유경(2003)에 의하면 기부횟수는 여성들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태규(2007)는 우리나라의 개인기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그 보완적 분석으로서 기부횟수의 분석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일정한 기간 동안 기부횟수가 많다는 것은 기부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의 정기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김인영 외(2006)는 설문조사자료에 혼합포아송모형(mixed poisson)을 적용하여 기부횟수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원봉사경험의 여부와 소득이 기부횟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박태규의(2008)의 연구에서는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사용하여 기부횟수를 분석하였고, 기부횟수에 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 소득, 종교, 자

원봉사 경험 등이 기부횟수에 정(正)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원봉사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개인기부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 기부금액

개인기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기부 ‘금액’의 결정요인에 집중되어 왔다(박태규 외, 2008). 기부금액 즉 기부수요(demand for charitable contribution)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연구는 Feldstein(1975), Reece(1979) 등에 의하여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초점은 정부의 세금유인(tax incentives)이 기부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금액을 직접 변수로 활용하기보다는 정기적 기부여부의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강철휘 외(2008)는 기부 미참여 대 비정기적 참여, 미참여 대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대 정기적 참여 등의 세 가지 비교 모형 모두에서 자원봉사 경험과 나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이 비정기적 참여 및 정기적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기부사회화는 미참여를 준거로 했을 때 비정기적 참여와 정기적 참여 등의 기부참여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철 외(2010)의 연구에서는 기부 미 참여자에 비해 정기적인 기부참여자는 나눔 경험의 유형 중 참여경험과 관찰경험의 수준이 높은 특성을 나타냈으며, 기부 정기성에 대한 나눔 경험 유형간 상호작용효과에서는 기부 미참여자와 비정기기부자에 비해 정기기부자가 교육경험과 관찰경험과 이원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3) 기부지속의향

고객만족이론에 의하면, 후원지속기간은 후원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후원자의 만족도는 후원자가 그 기관과 후원활동에 대해 갖는 기대와 실제 결과와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기관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으

로 나뉘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후원자의 인식이 처음의 기대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 적용되며, 후자의 불만족의 경우는 후원자의 후원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이상호, 2009).

Sargeant(1999)는 개인기부자의 과거기부경험에 대한 만족이 기부행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경수·김대원(2012)는 기부행위 지속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성별, 혼인, 종교의 특성, 미래재정의 낙관성과 자선단체 신뢰성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강철희 외(2010)의 연구에서도 현재에도 기부활동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하고자 하는 기부지속집단 즉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는 특성은 과거기부경험, 과거 기부행동 관찰경험, 비영리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숙(2008)은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성취도, 조직 윤리성, 서비스 품질이 조직동일시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윤리성, 서비스 품질은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교환효용, 이타적 동기, 수혜자 공감 모두 기부 동일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부동일시는 조직동일시 및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동일시는 조직신뢰 및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직신뢰는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조직에서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잠재적 기부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속적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류방(2013)은 기부자의 기부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 정기성, 지속적 관심, 지속적 참여, 미래 지속성, 기부 재행동으로 설정하였고, 이 연구에서 기부만족은 기부에 대한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지속성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의 만족, 신뢰, 몰입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은 몰입, 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부와 관련한 확고하고 깊은 정도의 태도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기부 만족으로서, 기부행위에 대해 소명이나 소신을 가진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만족이 낮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희생을 포함한 이타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부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중단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4) 기부추천의향

기부행동은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행동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에는 기부의도, 기부만족, 기부지속성 등의 변수로 측정되고 있다(변충규, 2014). 이들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기부행동을 소비자 만족, 고객만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개인들이 기부행동을 한 후, 만족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다시 또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구전행동을 함으로써 기부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의 효용증대와 마찬가지로 기부행동 역시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기부자들의 효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행된다는 것이다(김정훈, 2011).

기부자의 기부행위는 기부자에 의해 보여지고 느껴진 기부대상기관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기부대상기관의 입지적 조건, 설립연도와 목적, 기관장과 이사회의 활동정도와 영향력, 전담인력이나 관리부서의 노력, 기관의 이미지 등에 기부행위는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부자와 기부대상 기관의 관계에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호영, 2006).

한혜란(2012)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부의 지속성을 유발하는 경로는 첫째로 개인의 이질성에 의한 경로로 개인의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한 영향이며, 둘째로 과거의 기부경험이 미래의 기부경험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개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습관적 기부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기부참여에서 특히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발생한다면 초기의 기부참여유도가 이후로도 꾸준한 기부참여로 이어져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윤용근(2004)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 에너지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용변수(surrogate variable)로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의도(intention)를 권한다고하면서 그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부를 권하겠다”,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기부를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기부 권유를 측정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에 관한 초기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의 적용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진광(1999)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가치, 목적, 수단을 연계시키기 위한 새로운 논리체계 정립을 시도하고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공간화를 통한 지역발전 논리를 제시하고자 전통적 자본의 한계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량적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주로 일정지역, 특정계층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비교를 통해 정책발전·지역발전·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소진광, 2003; 정기환, 2003; 홍영란, 2007; 한상미, 2007; 박세경 외, 2008).

한국의 지역주의를 설명하고자 사회적 자본의 서로 다른 소속인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현우 외(2009)는 개인이 결속형 결사체에 많이 가입할수록 지역주의적 태도가 강해진다고 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교량형일수록 개인의 지역주의적 태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증명하면서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이 지역주의적인 행동의 결과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위개념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김승현(2008)은 사적 신뢰가 사회신뢰와 상당히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사적 신뢰는 일차적 조직과 사회신뢰는 이차적 조직과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어느 나라보다도 격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사적 신뢰가 지극히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혜영과 김정주(2012)는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주민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간의 상관관계 결과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범과 만족도 간의 관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각 요인별로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와 규범을 제외하고 신뢰와 참여성 요인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역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영향관계를 분석한 박영순과 고동완(2010)은 사회적 자본 중 주민간 신뢰와 규범 인식을 포함하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 권한강화와 연대감, 장소 애착감 등의 주민통합을 비롯하여 삶의 질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중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 형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강호, 201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동네수준과 개인수준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한 곽현근(2013)은 장기거주 주민비율이 집합적 효능감과 관련하여 동네효과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개인수준에서는 주택소유여부와 주거기간이 모든 차원의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욱이 박선희와 박병현(2012)은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빈곤지역 여부는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빈곤정책에 있어 지역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진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기(2006)는 사회적 자본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자간 맺어진 공급량 감축협약이행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의 조밀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제주지역의 문화적 독특성이 정보의 공유와 감귤생산농가들 간에 지켜야 하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돌아오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제재, 협약을 지킬 경우 이익이 돌아온다는 신뢰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 간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주민의 전체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황경수(2015)는 규범과 참여가 높을수록 제주지역 고유의 공동체문화인

켄당문화는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적 관계에서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규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참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복지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진관훈(2011)은 복지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규범준수, 자선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출신지역 따른 차별 해소, 집단 의사 존중, 공공부문의 청렴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준수, 사회단체의 규범준수가 중요하며, 현재 복지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식과 공감의 부족하여 복지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창남(2012)은 제주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연구대상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지역복지 인식수준, 사회적 자본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인식수준, 사회적 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제주형 복지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신뢰기반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되며 지역복지 인프라 조성 및 홍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자본과 기부행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을 국가간 비교한 박세경외(2009)의 연구에서는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전략과 기부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부 측면에서는 기부금 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공제한도 및 고액 장기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지식정보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 영역의 비영리조직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지훈 외(2013)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 인식은 타인신뢰, 사회참여의사, 네트워크수용의 3가지 변수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자본 형성은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2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

은 삶의 질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긍정적인 삶의 질 또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자본 인식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은 자신들이 경험한 삶의 질을 매개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자영·김두섭(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타적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부행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과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문화적 성향을 조사하여 개인 기부자들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정기적 기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2. 문화성향 관련 선행연구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문화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성향의 변화는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라고 여겨진다고 하였다. 문화성향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론이 도입된 초기에 집단주의로 분류되었던 한국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은영과 차유리(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20~50대를 대상으로 1979년, 1998년, 2010년의 가치관 조사를 비교하여 지난 30년간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와 남녀평등 의식 등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그와 동시에 연령 등에 의한 상하구별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갖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한 정영희(2005)는 집단주의 성향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개인주의 성향자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종한(1992)은 한국의 경우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동창회, 종친회 등 비자발적 공동체에 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졌고, 이에 비해 미국은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에 기초한 종교집단, 직계가족, 친구 등 자발적 공동체인 경우에 더 강한 공동체의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장수지 외(2014)의 연구에서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지역 공동체의식, 활동모임공동체의식, 가상공동체의식 간 관계의 검토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연령집단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주목한 결과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김정식(2011)은 집단 간의 비교 이외에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개인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독립적 자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며, 타인의 행동은 내부 귀인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김선우 외(2010)는 한국, 미국, 스웨덴 3국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을 비교하였는데,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Triandis의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부성향은 미국, 스웨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성향은 기부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은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기부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지현(2014)은 개인 문화성향에 따른 정보인식과 태도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문화성향의 파악을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에 수직적/수평적 차원을 첨가하여 네 그룹으로 분류하는 Triandis의 척도를 적용하여 실험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수평적 집단주의의 성향을 가진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문화성향은 국가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직-개인집단에서 수평-개인집단으로 달라진다고 하였다.

3. 기부지속성 관련 선행연구

민간영역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유형으로서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즉 기부행위는 세금과 같이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자신의 부와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활동이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될 수 있다(양용희, 2003).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들의 존립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자개발과 기부활동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부 및 모금방법 등이 연구 되었다. 대부분의 기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기부나 자원봉사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내적 동기 요인과, 기부 여부 및 규모와 수준 등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Sargeant, 1999; 이성록, 2001; 황창순·강철희, 2002; 정호영, 2006; 강철희 외, 2007; 김주원·김용준, 2008; 조선주·박태규, 2007; 류기형 등, 2009).

기부동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그 동안 비영리조직의 기부확보와 기부행위에 대하여 각 분야에서 기부동기들을 분석하고 경제학 측면에서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이타주의 및 사회와의 관계성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강철희, 2004).

또한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개인기부자 개발을 위한 전략과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로는 개인의 기부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선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학기부자와 자선기부자의 기부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기부경험 및 의도에 따른 집단별 기부행동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등이 있다(김주원, 2005; 송정민, 2008; 이상호, 2009; 박경수·김대원, 2012; 김연·김정우, 2014).

최근에는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에서 청원프로그램 개발에 전략적 마케팅 개

념과, 브랜드 자산개념을 도입하여 기관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충성적 고객확보를 통한 장기적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동영·변은지, 2007; 김주원·김용준 2008).

더불어 박세경 등(2009), 유홍준과 홍훈식(2009) 등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인적·물적 자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인들의 기부참여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동기뿐만 아니라 기부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성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및 표집집단군에 의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간의 다른 결과를 가진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인요인, 사회적요인, 문화적요인 등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하여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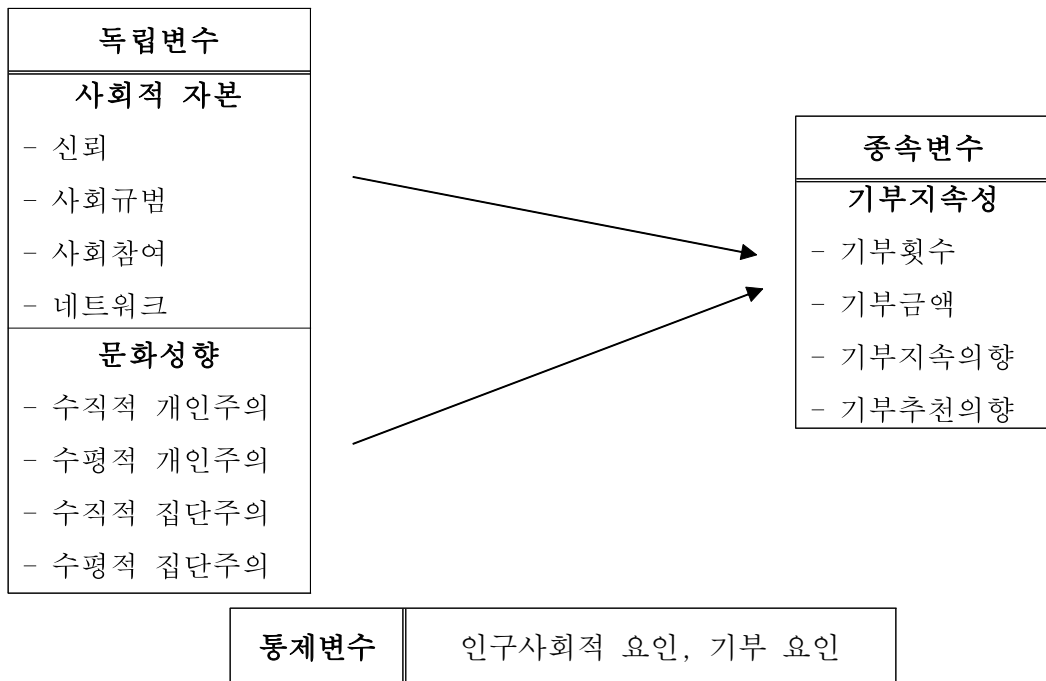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제1절 연구 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부지속성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독립변수로, 기부지속성은 종속변수, 인구사회적 요인과 기부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기업 기부자에 비해 개인 기부자 비율이 높고, 기부금 모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는 것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및 기부요인에 따라 기부지속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적 자본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2절 측정도구

1.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지수와 Esser의 사회적 자본 구조도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와 World Bank (2004)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를 구성요소로 삼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김동완(2013), 소진광(2003)의 사회적 자본 요소를 바탕으로 사용한 설문구성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첫째, 신뢰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가족 신뢰 정도’, ‘친척 신뢰 정도’, ‘이웃 신뢰 정도’, ‘친구 신뢰 정도’, ‘종교단체 신뢰 정도’, ‘시민단체 신뢰 정도’, ‘도 및 정부 공무원 신뢰 정도’, ‘법과 제도 신뢰 정도’, ‘정책과정 신뢰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사회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우리지역주민은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우리지역사회 공공부문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우리지역 자치단체는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봉사단체 참여 정도’, ‘종교단체 참여 정도’, ‘친목단체 참여 정도’, ‘직업단체 참여 정도’, ‘정치단체 참여 정도’, ‘지역사회 행사 참여 정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에의 참여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우리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 .884, 사회규범 .852, 사회참여 .849, 네트워크 .830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 전체 지표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27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자본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신뢰 ●친척 신뢰 ●이웃 신뢰 ●친구 신뢰 ●종교단체 신뢰 ●시민단체 신뢰 ●도지사 신뢰 ●지방의원 신뢰 ●국회의원 신뢰 ●시 공무원 신뢰 ●도 및 정부 공무원 신뢰 ●법과 제도 신뢰 ●도청 정책결정 과정 ●시청 정책결정 과정 	14	.884
	사회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주민의 규범(법과 질서)준수 여부 ●지역사회 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지역 내 의사존중과 반영여부 ●지역 내 공공부문의 청렴정도 인식 ●지역 내 민간부문의 청렴정도 인식 ●지역 자치단체의 법규 준수 여부 ●지역사회내의 각종단체, 기관, 조직들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7	.852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단체 참여도 ●종교단체 참여도 ●친목단체 참여도 ●직업단체 참여도 ●시민단체 참여도 ●정치단체 참여도 ●지역행사 참여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도 ●간담회 및 토론회 참여도 	9	.849

<표 3-1>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보공유 정도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간의 협력여부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제도 • 지방 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정도 •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정보 제공 정도 •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의사소통 정도 • 6개 사회단체(종교, 교육·예술·문화, 스포츠·여가, 노조, 정당, 전문협회) 가입정도 측정 	7	.830

2. 문화성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기범(1996)이 표준화한 문항을 표정민(2014), 장수지·김수영·Erika Kobayashi(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영역을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직적 개인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준다’, ‘경쟁은 삶의 원천이다’,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낀다’,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수직적 집단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경쟁없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수평적 집단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수직적 개인주의 .601, 수평적 개인주의 .706, 수직적 집단주의 .620, 수평적 집단주의 .709로 나타났고, 문화성향 전체지표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66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화성향 측정도구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문화성향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이 나의 행복임 •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함 •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 언짢음 •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8	.601

<표 3-2> 문화성향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문화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것이 중요함 •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함 •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김 •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김 		
	수평적 개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함 • 나는 내 방식대로 삶 •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 겪고 있으면 내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줌 • 경쟁은 삶의 원칙임 •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끼게 됨 •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임 •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됨 	8	.706
	수직적 집단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함 •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음 •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 좋음 •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 중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 •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 나는 다름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함 •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함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음 	8	.620
	수평적 집단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함 •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것 나에게 중요함 •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함 	8	.709

<표 3-2> 문화성향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문화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함 •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임 •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함 •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함 •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함. 		

3. 기부지속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류방(2013), 김자영(2009), 김해숙(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구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류방(2013)은 개인 기부자의 정기적·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지속성으로 구성하였고, 김자영(2009)은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기부기간, 기부지속의향, 기부금액, 기부추천의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김해숙(2008)은 지속적 기부행동의 선행과정인 지속적 관계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동일시, 조직신뢰, 기부 동일시의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기부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기부회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부횟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한다’, ‘기부와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대부분 참석한다’, ‘기부에 대해 다음 번 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부금액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앞으로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 ‘나는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고액기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구성하였다.

셋째, 기부지속의향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기부활동 참여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충실한 기부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장기적 성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로 구성하였다.

넷째, 기부추천의향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 ‘나는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의 좋은 점을 타인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기부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이 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것이다’, ‘내가 기부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부횟수 .807, 기부금액 .689, 기부지속의향 .912, 기부추천의향 .940로 나타났고, 기부지속성 전체지표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4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부지속성 측정도구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기부지속성 평가지표

구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기부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기부 여부 ● 내가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해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함 ● 기부와 관련한 동아리나 모임에 대부분 참석 ● 기부에 대해 다음 번 활동에 참여 의향 	4	.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 여부 	4	.689

<표 3-3> 기부지속성 평가지표

구분	항목	문항 수	Cronbach's α
기부지속성	금액		.912
	기부지속의향	4	
	기부추천의향	4	.940

4.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거주지역, 직업, 종교,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7가지 변수를 사용하였고, 기부요인으로는 정기적 기부여부, 월평균 기부금액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속변수가

아닌 성별, 학력, 거주지역, 종교, 직업변수 등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 종속변수인 기부지속성은 각각의 하위변수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부지속성은 ((기부횟수+기부금액+기부지속의향+기부추천의향)/4)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구성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주요 변수의 구성

변수			측정
독립 변수	사회적 자본	신뢰	전혀 신뢰 못함(1점)~전적으로 신뢰함(5점)
		사회규범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
		사회참여	전혀 참여 안함(1점)~적극 참여함(5점)
		네트워크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종속 변수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통제 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성별	0=남(기준변수) / 1=여
		연령	연속변수

<표 3-4> 주요 변수의 구성

변수		측정
	최종학력	0=고졸이하(기준변수)/1=대졸이상
	거주지역	0=제주시(기준변수)/1=서귀포시
	직업	0=전문관리직(전문직=0, 관리직=0), 1=비전문관리직(사무직=1, 기타=1)
	종교	0=무교, 1=유교
	월평균 가구 총소득	연속변수
기부요인	정기적 기부여부	0=예(기준변수)/1=아니오
	월평균 기부금액	연속변수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선정은 목적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과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방법을 병행하여 표집하였다. 목적표본추출은 구체적인 연구단위가 확실히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유의표본이 연구자가 찾고 있는 정보에 대해 주어진 모집단에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연구 단위를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므로 판단표본추출(judgemental sampling)이라고도 부른다(박용치 외, 2009). 그리고 할당표본추출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연구 단위를 원하는 수만큼 얻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포함하기 위해서 기부경험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일반 근무시설(사무실)에 종사하는 도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목적표본추출), 이들의 비율을 할당하는데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비율을 계산한 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부수를 할당하였다(할당표본추출). 즉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한 후, 일반 근무시설(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2015년 4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는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 연구자가 일반 근무시설(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였으며, 540부(회수율- 98.2%)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분만을 응답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10부를 제외한 530부가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수준을 측정하고, 연구대상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t-test,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자본 4개 변수(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성향 4개 변수(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기부지속성의 4개 변수(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독립변수로, 기부지속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했을 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적 요인, 기부요인)과 사회적 자본 하위요인, 문화성향 하위요인이 기부지속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부지속성 전체요인에 대한 영향요인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R^2 , 모형의 유의도, 회귀계수 등을 측정하여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의 변수들이 기부지속성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245명(46.2%), 여성 285명(53.8%)로 나타났고,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 87명(16.4%), 30대 146명(27.6%), 40대 183명(34.6%), 50대 이상 113명(21.4%)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95.1%가 대졸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졸이하는 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제주도 414명(78.1%), 서귀포시 116명(21.9%)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인구분포를 비교적 반영하고 있었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 75명(14.2%), 관리직 31명(5.9%), 사무직 379명(71.6%), 기타 44명(8.3%)으로 나타났고, 종교의 경우 불교 151명(28.5%), 기독교 46명(8.7%), 천주교 71명(13.4%), 무교 262명(49.4%)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응답자와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87명(16.4%), 200-300만원 미만 101명(19.1%), 300-400만원 미만 115명(21.7%), 400-500만원 미만 104명(19.6%), 500-600만원 미만 64명(12.1%), 600만원 이상 59명(11.1%)으로 나타났다.

기부요인을 살펴보면, 정기적 기부여부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명(76.4%), 정기적으로 기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25명(23.6%)로 나타났고, 월평균 기부금액의 경우 1-3만원 기부자가 175명(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만원 이상 86명(21.1%), 3-5만원 79명(19.4%), 5-7만원 41명(10.0%), 1만원 미만 27명(6.6%),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인구 사회적 요인	성별 (n=530)	남 여	245 285	46.2 53.8
	연령 (n=529)	20대 이하	87	16.4
		30대	146	27.6
		40대	183	34.6
		50대 이상	113	21.4
	최종학력 (n=530)	고졸이하	26	4.9
		대졸(전문대 포함)	448	84.5
		대학원이상	56	10.6
	거주지역 (n=530)	제주시	414	78.1
		서귀포시	116	21.9
	직업 (n=529)	전문직	75	14.2
		관리직	31	5.9
사무직		379	71.6	
기타 ⁵⁾		44	8.3	
종교 (n=530)	불교	151	28.5	
	기독교	46	8.7	
	천주교	71	13.4	
	무교	262	49.4	
월평균 총 가구소득 (n=530)	200만원 미만	87	16.4	
	2000-300만원 미만	101	19.1	
	300-400만원 미만	115	21.7	
	400-500만원 미만	104	19.6	
	500-600만원 미만	64	12.1	
	600만원 이상	59	11.1	
기부 요인	정기적 기부 여부 (n=530)	예	405	76.4
		아니오	125	23.6
	월평균 기부액 (n=408)	1만원 미만	27	6.6
		1-3만원 미만	175	42.9
		3-5만원 미만	79	19.4
5-7만원 미만		41	10.0	
7만원 이상	86	21.1		

5) 기타 직업군은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자영업, 주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조사대상자의 주요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지속성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3(SD=.73)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부지속성 하위요인 중 기부지속의향(3.38점)과 기부추천의향(3.28점)은 기부횟수나 기부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94(SD=.44)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은 신뢰(3.2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참여(2.4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독립변수인 문화성향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0(SD=.34)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성향 하위요인 중 수직적 집단주의(3.6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3.3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문화성향이 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한규석·신수진, 1999; 류승아, 2010)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시 지역적 특성 등 그 이유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평가지표 기술통계량

구분	N	Min	Max	M	SD
사회적 자본	530	1.63	4.27	2.94	.44
신뢰	530	1.93	4.43	3.23	.49
사회규범	530	1.00	4.86	3.13	.57
사회참여	530	1.00	4.67	2.46	.66

네트워크	530	1.00	4.43	2.94	.55
문화성향	530	1.72	4.84	3.50	.34
수직적 개인주의	530	2.00	4.88	3.42	.39
수평적 개인주의	530	1.25	4.88	3.36	.44
수직적 집단주의	530	1.88	4.88	3.61	.39
수평적 집단주의	530	1.75	5.00	3.60	.45
기부지속성	529	1.00	4.81	3.03	.73
기부횟수	530	1.00	5.00	2.91	.86
기부금액	530	1.00	4.50	2.54	.66
기부지속의향	529	1.00	5.00	3.38	.92
기부추천의향	530	1.00	5.00	3.28	.90

2.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기부특성에 따라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이 상위변수인 기부지속성은 전체(①+②+③+④)로 표시되어 있으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거주지, 직업에 따른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연령($F=15.184$, $p=.000$), 학력($F=7.294$, $p=.001$), 종교($F=7.630$, $p=.000$), 월평균 총 가구소득($F=3.894$, $p=.002$)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부지속성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직업, 종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과 기부

추천의향 변수에서는 기부지속성과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종교, 월평균가구총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의 기부지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20대 이하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40대, 50대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검비되는 나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고졸이하 또는 대졸집단에 비해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인 경우, 무교거나 불교인 경우보다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자나 종교가 있는 집단의 경우 오블리브스 노블리주의 책임감에 의한 행동이거나, 사회적 체면이나 평판에 대해 저학력자가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4-3>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구분		기부지속성									
		전체 (①+②+③+④)		①기부횟수		②기부금액		③기부지속 의향		④기부추천 의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 별	남	3.04 (.72)	.256	2.94 (.82)	.828	2.56 (.67)	.414	3.40 (.90)	.412	3.26 (.88)	-.572
	여	3.02 (.75)		2.88 (.89)		2.53 (.65)		3.36 (.94)		3.31 (.93)	
연 령	20대 이하 ^a	2.73 (.75)	15.184***	2.54 (.88)	16.292***	2.37 (.65)	12.902***	3.00 (.97)	11.296***	3.02 (.90)	8.836***
	30대 ^b	2.85 (.76)		2.72 (.87)		2.38 (.65)		3.21 (.97)		3.10 (.98)	
	40대 ^c	3.14 (.65)		3.02 (.76)		2.59 (.59)		3.56 (.86)		3.40 (.80)	
	50대 이상 ^d	3.30 (.69)		3.25 (.80)		2.82 (.68)		3.59 (.80)		3.54 (.88)	
	사후 검증	a,b<c,d		a,b<c<d		a,b<c<d		a,b<c,d		a,b<c,d	
학 력	고졸 이하 ^a	2.76 (.90)	7.294**	2.66 (1.07)	6.894**	2.31 (.76)	3.115*	3.02 (1.07)	6.939**	3.07 (1.15)	5.650**
	대졸 ^b	3.00 (.72)		2.87 (.83)		2.54 (.65)		3.35 (.92)		3.25 (.89)	
	대학원 이상 ^c	3.34 (.70)		3.28 (.86)		2.69 (.65)		3.75 (.81)		3.65 (.83)	

	사후 검증	a,b<c		a,b<c		a,b<c		a,b<c		a,b<c	
거 주 지	제주시	3.03 (.72)	-.124	2.91 (.84)	.082	2.53 (.64)	-.774	3.38 (.92)	.162	3.28 (.89)	-.262
	서귀포	3.03 (.77)		2.90 (.90)		2.59 (.74)		3.37 (.96)		3.30 (.97)	
직 업	전문직 ^a	3.01 (.80)	2.141	2.90 (.88)	2.271	2.48 (.74)	3.004*	3.35 (1.00)	1.079	3.29 (.98)	1.597
	관리직 ^b	3.29 (.75)		3.19 (.92)		2.85 (.60)		3.66 (.97)		3.45 (.91)	
	사무직 ^c	2.99 (.71)		2.86 (.83)		2.52 (.64)		3.35 (.90)		3.24 (.88)	
	기타 ^d	3.17 (.77)		3.10 (.95)		2.65 (.68)		3.40 (.94)		3.52 (.92)	
	사후 검증	c,a,d<b				a,c,d<b					
종 교	불교 ^a	3.01 (.75)	7.630***	2.92 (.82)	5.961**	2.53 (.63)	2.978*	3.33 (.90)	6.619***	3.25 (.87)	7.618***
	기독교 ^b	3.39 (.65)		3.23 (.81)		2.77 (.60)		3.85 (.81)		3.72 (.86)	
	천주교 ^c	3.22 (.69)		3.13 (.88)		2.64 (.67)		3.58 (.82)		3.54 (.80)	
	무교 ^d	2.92 (.75)		2.78 (.85)		2.49 (.68)		3.27 (.95)		3.16 (.92)	
	사후 검증	d,a<c,b		d,a<c<b		d,a,c<b		d,a<c<b		d,a<c,b	
월 평 균 총 가 구 소 득	200만원 미만 ^a	2.81 (.72)	3.894**	2.61 (.87)	4.726***	2.46 (.61)	.883	3.06 (.99)	4.518***	3.08 (.91)	2.511*
	200-300 만원 ^b	2.95 (.74)		2.82 (.84)		2.49 (.70)		3.27 (.89)		3.22 (.93)	
	300-400 만원 ^c	3.03 (.72)		2.96 (.85)		2.55 (.65)		3.39 (.91)		3.24 (.88)	
	400-500 만원 ^d	3.07 (.71)		2.91 (.80)		2.57 (.66)		3.43 (.91)		3.36 (.86)	
	500-600 만원 ^e	3.28 (.70)		3.22 (.80)		2.65 (.70)		3.70 (.85)		3.57 (.84)	
	600만원 이상 ^f	3.14 (.74)		3.06 (.91)		2.61 (.64)		3.56 (.89)		3.34 (.97)	
	사후 검증	a,b,c<d,f<e		a,b<d,c,f<e				a,b<c,d,f<e		a,b,c,f,d<e	

*p<.05, **p<.01, ***p<.001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부 특성에 따라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기부지속성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적 기부여부($t=13.345$, $p=.000$), 월평균 기부액($F=18.006$, $p=.000$)에 따른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부지속성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변수 모두 정기기부여부와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7만원 이상 기부자가 7만원 미만 기부자에 비해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기기부자 집단이 비정기기부집단에 비해, 또한 월평균 기부액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해 기부의 필요성 및 기부로 인한 보람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응답자의 기부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구분		기부지속성									
		전체 (①+②+③+④)		①기부횟수		②기부금액		③기부지속 의향		④기부추천 의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정기 기부 여부	예	3.23 (.61)	13.345***	3.16 (.72)	14.288***	2.64 (.62)	5.931***	3.67 (.73)	16.203***	3.47 (.81)	8.884***
	아니오	2.37 (.70)		2.09 (.75)		2.25 (.68)		2.42 (.83)		2.70 (.93)	
월평균 기부 액	1만원 미만 ^a	2.69 (.45)	18.006***	2.66 (.50)	15.835***	2.25 (.59)	7.848***	3.08 (.67)	15.608***	2.77 (.44)	11.186***
	1-3 만원 ^b	3.10 (.54)		2.97 (.64)		2.56 (.58)		3.51 (.69)		3.36 (.71)	
	3-5 만원 ^c	3.28 (.60)		3.21 (.74)		2.66 (.67)		3.75 (.61)		3.52 (.83)	
	5-7 만원 ^d	3.35 (.68)		3.33 (.78)		2.69 (.60)		3.85 (.85)		3.55 (.99)	
	7만원 이상 ^e	3.60 (.56)		3.57 (.66)		2.91 (.64)		4.07 (.66)		3.83 (.82)	
	사후 검증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 $p<.05$, ** $p<.01$, *** $p<.001$

제3절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과 문화성향(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기부지속성(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모든 변수 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낮은⁶⁾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규범간의 상관계수는 .634, 네트워크와의 상관계수는 .530, 사회참여와의 상관계수는 .40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규범의 경우, 네트워크와의 상관계수는 .579, 사회참여와의 상관계수는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의 경우, 기부횟수와의 상관계수는 .557, 네트워크와의 상관계수는 .432, 기부금액과의 상관계수는 .428, 기부추천의향과의 상관계수는 .423, 기부지속의향과의 상관계수는 .40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의 경우, 기부금액(.291), 기부횟수(.288), 수직적 개인주의(.274), 수평적 개인주의(.273) 등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평적 개인주의(.573), 수직적 집단주의(.537), 수평적 집단주의(.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552), 수평적 집단주의(.548), 기부횟수(.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의 모두 다른 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부횟수의 경우, 기부지속의향과의 상관계수는 .745, 기부추천 의향과의 상관계수는 .674, 기부금액과의 상관계수는 .633으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금액의 경우, 기부추천의향(.650), 기부지속의향(.613)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지속의향과 기부추천의향과의 상관계수는 .786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 0.9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m 0.7 \sim 0.9$ 미만이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pm 0.4 \sim 0.7$ 미만일 때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pm 0.2 \sim 0.4$ 미만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우수명, 2007).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소들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변수 간 상관관계가 다소 낮게 나타난 요소들은 상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표 4-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회적 자본				문화성향				기부지속성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수직적 개인	수평적 개인	수직적 집단	수평적 집단	기부 횟수	기부 금액	기부 지속	기부 추천
사회적 자본	신뢰	1											
	사회 규범	.634***	1										
	사회 참여	.401***	.335***	1									
	네트 워크	.530***	.579***	.432***	1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	.285***	.247***	.325***	.274**	1							
	수평적 개인	.283***	.285***	.347***	.273***	.573***	1						
	수직적 집단	.255***	.211***	.228***	.234***	.537***	.552***	1					
	수평적 집단	.221***	.213*	.198***	.202***	.433***	.548***	.552***	1				
기부지속성	기부 횟수	.332***	.241***	.557***	.288***	.290***	.329***	.223***	.209***	1			
	기부 금액	.329***	.251***	.428***	.291***	.255***	.275***	.130**	.162***	.633***	1		
	기부 지속	.278***	.219***	.403***	.241***	.240***	.231***	.179***	.195***	.745***	.613***	1	
	기부 추천	.280***	.193***	.423***	.255***	.244***	.281***	.206***	.203***	.674***	.650***	.786***	1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적 요인, 기부요인)과 사회적 자본 및 문화성향의 하위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을 경우, 기부지속성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표 4-6>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I 은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이 때 일반적 특성은 기부횟수에 대해 15.1% 설명하고 있으며($R^2=.151$),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7.876$,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 변수($t=6.477$, $p=.000$)와 연령변수($t=2.417$, $p=.016$)가 기부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 월평균가구소득, 정기기부여부는 기부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횟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요소를 모델 I에 추가한 분석모형이다. 일반적 특성 변수와 사회적 자본의 4가지 하위요인(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은 기부횟수에 대해 38.1% 설명하고 있으며($R^2=.381$),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18.582$,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모델 I과 비교할 때,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 기부액과 사회참여 변수는 $p<.001$ 수준에서, 신뢰 변수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참여($\beta= .434$)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평균 기부액($\beta=.249$), 신뢰($\beta=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이어 문화성향의 하위변인 4가지(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기부횟수 41.9%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R^2=.419$,

F=16.483, p<.001)로 파악되었다. 월평균 기부액(t=5.832, p=.000), 신뢰(t=2.821, p=.005), 사회참여(t=7.697, p=.000), 수직적 개인주의(t=2.003, p=.046), 수평적 개인주의(t=2.820, p=.005)가 기부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참여($\beta = .370$)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평균 기부액($\beta = .259$), 신뢰($\beta =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고, 신뢰와 사회참여 수준이 높고,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상수	2.240 (.214)		10.474***	.622 (.255)		2.442*	-.356 (.346)		-1.028	
일 반 적 특 성	성별1)	-.023 (.069)	-.016	-.336	.094 (.060)	.065	1.551	.106 (.059)	.073	1.795
	연령	.091 (.038)	.121	2.417*	-.014 (.034)	-.019	-.409	-.030 (.034)	-.040	-.888
	학력2)	.139 (.173)	.038	.805	.124 (.149)	.033	.830	.125 (.146)	.034	.854
	거주지3)	.041 (.082)	.023	.494	-.029 (.071)	-.017	-.405	.019 (.070)	.011	.272
	직업4)	.005 (.007)	.034	.731	.005 (.006)	.035	.863	.004 (.006)	.028	.711
	종교5)	.069 (.069)	.048	.998	-.095 (.061)	-.066	-1.551	-.100 (.060)	-.069	-1.660
	월평균 가구소득	-.017 (.024)	-.037	-.730	-.015 (.021)	-.032	-.735	-.031 (.020)	-.067	-1.537
	정기 기부여부6)	.093 (.396)	-.009	-.184	-.065 (.344)	+.008	-.188	-.027 (.339)	-.003	-.081
	월평균 기부액	.189 (.029)	.336	6.477***	.140 (.025)	.249	5.502***	.146 (.025)	.259	5.832***
	사 회 적 자 본	신뢰			.246 (.085)	.170	2.903**	.234 (.083)	.162	2.821**
사회규범				-.058 (.070)	-.047	-.830	-.104 (.069)	-.084	-1.516	
사회참여				.485 (.053)	.434	9.115***	.414 (.054)	.370	7.697***	
네트워크				.081 (.070)	.063	1.153	.063 (.069)	.048	.913	
문 화	수직적 개인주의						.182 (.091)	.103	2.003*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성 향	수평적 개인주의							.253 (.090)	.156	2.820**
	수직적 집단주의							.064 (.105)	.035	.608
	수평적 집단주의							-.069 (.082)	-.044	-.838
	F값		7.876***			18.582***			16.483***	
	R ²		.151			.381			.419	
	수정된 R ²		.132			.360			.393	

*p<.05, **p<.01, ***p<.001

- 1) 성별 : 0=남성, 1=여성
- 2) 학력 : 0=고졸이하, 1=대졸이상
- 3) 거주지역 : 0=제주지, 1=서귀포시
- 4) 직업 : 0=전문관리직, 1=비전문관리직
- 5) 종교 : 0=무교, 1=유교
- 6) 정기적 기부여부 : 0=예, 1=아니오

2.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표 4-7>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I 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이 때 일반적 특성은 기부금액에 대해 10.9% 설명하고 있으며($R^2=.109$),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5.415$,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연령($t=3.065$, $p=.002$), 정기기부여부($t=2.508$, $p=.013$), 월평균 기부액 변수($t=3.999$, $p=.000$)가 기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 월평균가구소득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정기기부자일수록 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요소를 모델 I 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기부금액에 대해 25.3% 설명하고 있으며($R^2=.253$),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10.258$,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모델 I 과 비교할 때,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기기부여부, 월평균 기부액, 신뢰, 사회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beta=.264$)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신뢰($\beta = .172$), 월평균 기부액($\beta =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이어 문화성향의 하위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기부금액을 28.3%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R^2 = .283$, $F = 9.045$, $p < .001$)로 파악되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정기기부여부($t = 2.571$, $p = .011$), 월평균 기부액($t = 3.457$, $p = .001$), 신뢰($t = 2.747$, $p = .006$), 사회참여($t = 3.996$, $p = .000$), 수직적 개인주의($t = 2.604$, $p = .010$), 수평적 개인주의($t = 2.202$, $p = .028$)가 기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beta = .213$)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뢰($\beta = .175$), 월평균 기부액($\beta =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기기부자일수록, 월평균 기부금액이 높을수록, 신뢰와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상수	1.820 (.192)		9.460**	.511 (.245)		2.084*	.111 (.337)		.329	
일반적 특성	성별1)	.020 (.062)	.016	.323	.096 (.058)	.076	1.654	.098 (.057)	.077	1.705
	연령	.104 (.034)	.158	3.065**	.025 (.033)	.038	.766	.028 (.033)	.042	.831
	학력2)	.246 (.155)	.076	1.581	.232 (.144)	.071	1.612	.227 (.143)	.070	1.593
	거주지3)	.099 (.074)	.065	1.332	.052 (.068)	.034	.757	.082 (.068)	.054	1.194
	직업4)	.004 (.006)	.033	.687	.004 (.006)	.029	.659	.003 (.006)	.026	.607
	종교5)	.009 (.063)	.007	.140	-.098 (.059)	-.077	-1.651	-.090 (.059)	-.071	-1.528
	월평균 가구소득	-.016 (.021)	-.039	-.746	-.016 (.020)	-.040	-.827	-.026 (.020)	-.063	-1.315
	정기 기부여부6)	.894 (.356)	.121	2.508*	.909 (.332)	.123	2.741**	.849 (.330)	.115	2.571*
	월평균 기부액	.105 (.026)	.213	3.999**	.075 (.025)	.151	3.040**	.084 (.024)	.170	3.457**
	사회적 자본	신뢰			.219 (.082)	.172	2.685**	.222 (.081)	.175	2.747**
사회규범				-.033 (.067)	-.031	-.496	-.070 (.067)	-.064	-1.039	
사회참여				.259 (.051)	.264	5.055***	.209 (.052)	.213	3.996***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네트워크				.130 (.068)	.114	1.912	.118 (.067)	.104	1.759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231 (.089)	.148	2.604*
	수평적 개인주의						.193 (.087)	.135	2.202*
	수직적 집단주의						-.185 (.103)	-.114	-1.799
	수평적 집단주의						-.033 (.080)	-.024	-.411
	F값	5.415***			10.258***			9.045***	
R ²	.109			.253			.283		
수정된 R ²	.089			.229			.252		

*p<.05, **p<.01, ***p<.001

- | | |
|-------------------------|---------------------------|
| 1) 성별 : 0=남성, 1=여성 | 2) 학력 : 0=고졸이하, 1=대졸이상 |
| 3) 거주지역 : 0=제주시, 1=서귀포시 | 4) 직업 : 0=전문관리직, 1=비전문관리직 |
| 5) 종교 : 0=무교, 1=유교 | 6) 정기적 기부여부 : 0=예, 1=아니오 |

3.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표 4-8>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I은 기부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이 때 일반적 특성은 기부지속의향에 대해 13.3% 설명하고 있으며($R^2=.133$),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6.727$,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 변수($t=6.783$, $p=.000$)만 기부지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기부지속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요소를 모델 I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기부지속의향에 대해 21.1% 설명하고 있으며($R^2=.211$),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8.040$,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변수는 $p<.001$ 수준에서, 사회참여 변수는 $p<.01$ 수준에서, 신뢰 변수는 $p<.05$ 수준에서 기부지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beta = .312$)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다음으로 사회참여($\beta = .177$), 신뢰($\beta =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이어 문화성향의 하위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기부지속의향을 25.3%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 ($R^2 = .253$, $F = 7.746$, $p < .001$)로 파악되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연령 ($t = -2.061$, $p = .040$), 월평균 기부액 ($t = 6.148$, $p = .000$), 사회참여 ($t = 2.454$, $p = .015$), 수직적 개인주의 ($t = 2.826$, $p = .005$)가 기부지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은 높고,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지속의향이 연령이 적을수록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로서, 저연령층의 기부지속의향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캠페인 개발 등 참신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8>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상수	2.909 (.220)		13.206***	1.756 (.293)		5.990***	.493 (.400)		1.233	
일반적 특성	성별1)	-.009 (.071)	-.006	-.126	.054 (.070)	.037	.778	.070 (.068)	.048	1.025
	연령	.007 (.039)	.009	.169	-.061 (.039)	-.079	-1.552	-.081 (.039)	-.106	-2.061*
	학력2)	.143 (.178)	.038	.804	.130 (.171)	.035	.759	.131 (.169)	.035	.777
	거주지3)	.083 (.085)	.047	.970	.047 (.082)	.027	.574	.107 (.081)	.061	1.322
	직업4)	.004 (.007)	.028	.584	.004 (.007)	.024	.521	.003 (.007)	.018	.402
	종교5)	-.013 (.072)	-.009	-.186	-.102 (.071)	-.070	-1.450	-.129 (.069)	-.088	-1.849
	월평균 가구소득	.000 (.024)	.000	-.009	-.002 (.024)	-.003	-.065	-.015 (.023)	-.031	-.632
	정기 기부여부6)	.308 (.408)	.036	.755	.316 (.395)	.037	.799	.434 (.391)	.051	1.109
	월평균 기부액	.204 (.030)	.356	6.783***	.178 (.029)	.312	6.097***	.177 (.029)	.310	6.148***
	사회 적 자	신뢰			.207 (.098)	.140	2.118*	.174 (.096)	.118	1.818
사회규범				-.028 (.081)	-.022	-.344	-.054 (.080)	-.042	-.677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본	사회참여				.201 (.061)	.177	3.292**	.153 (.062)	.134	2.454*
	네트워크				.118 (.081)	.089	1.457	.098 (.079)	.074	1.237
문화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297 (.105)	.165	2.826**
	수평적 개인주의							-.052 (.104)	-.032	-.501
	수직적 집단주의							.183 (.121)	.098	1.507
	수평적 집단주의							.063 (.095)	.039	.662
	F값		6.727***			8.040***			7.746***	
R ²		.133			.211			.253		
수정된 R ²		.113			.184			.221		

*p<.05, **p<.01, ***p<.001

- | | |
|-------------------------|---------------------------|
| 1) 성별 : 0=남성, 1=여성 | 2) 학력 : 0=고졸이하, 1=대졸이상 |
| 3) 거주지역 : 0=제주시, 1=서귀포시 | 4) 직업 : 0=전문관리직, 1=비전문관리직 |
| 5) 종교 : 0=무교, 1=유교 | 6) 정기적 기부여부 : 0=예, 1=아니오 |

4.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표 4-9>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I 은 기부추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이 때 일반적 특성은 기부지속의향에 대해 9.4% 설명하고 있으며 ($R^2=.094$),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4.579,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기부지속의향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기부액 변수($t=4.960, p=.000$)만 기부추천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기부추천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요소를 모델 I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기부추천의향에 대해 21.6% 설명하고 있으며($R^2=.216$),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8.341,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과 사

회참여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신뢰 변수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beta = .283$)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평균 기부액($\beta = .206$), 신뢰($\beta =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이어 문화성향의 하위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기부추천의향을 24.1%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R^2 = .241$, $F = 7.246$, $p < .001$)로 파악되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성별($t = 1.997$, $p = .047$), 월평균 기부액($t = 4.112$, $p = .000$), 신뢰($t = 2.547$, $p = .011$), 사회규범($t = -1.975$, $p = .049$), 사회참여변수($t = 4.329$, $p = .000$)가 기부추천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문화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beta = .238$)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평균 기부액($\beta = .209$), 신뢰($\beta = .167$), 사회규범($\beta = -.125$), 성별($\beta = .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신뢰와 사회참여 수준은 높고, 사회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추천의향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 기부자들이 기부추천의향이 높다는 것은 잠재적 기부자집단 발굴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9>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상수	2.790 (.251)		11.129***	1.398 (.325)		4.306***	.343 (.449)		.764	
일반적 특성	성별1)	.043 (.081)	.026	.531	.140 (.077)	.085	1.814	.153 (.076)	.093	1.997*
	연령	.047 (.044)	.055	1.063	-.044 (.043)	-.052	-1.014	-.060 (.044)	-.071	-1.370
	학력2)	.022 (.202)	.005	.109	.011 (.190)	.003	.057	-.002 (.190)	-.001	-.012
	거주지3)	.076 (.096)	.038	.783	.022 (.091)	.011	.238	.065 (.091)	.033	.712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직업4)	-.003 (.008)	-.020	-.416	-.003 (.008)	-.018	-.401	-.004 (.008)	-.024	-.540
	종교5)	.089 (.081)	.054	1.094	-.044 (.078)	-.027	-.559	-.057 (.078)	-.035	-.737
	월평균 가구소득	-.017 (.028)	-.032	-.602	-.018 (.026)	-.034	-.683	-.031 (.026)	-.059	-1.181
	정기 기부여부6)	.521 (.464)	.055	1.124	.471 (.439)	.049	1.072	.584 (.439)	.061	1.330
	월평균 기부액	.170 (.034)	.266	4.960***	.131 (.032)	.206	4.051***	.133 (.032)	.209	4.112***
	사 회 적 자 본	신뢰				.297 (.108)	.181	2.750**	.274 (.107)	.167
사회규범					-.142 (.089)	-.101	-1.591	-.176 (.089)	-.125	-1.975*
사회참여					.359 (.068)	.283	5.290***	.302 (.070)	.238	4.329***
네트워크					.121 (.090)	.083	1.351	.104 (.089)	.071	1.171
문 화 성 향	수직적 개인주의							.131 (.118)	.065	1.108
	수평적 개인주의							.133 (.116)	.072	1.147
	수직적 집단주의							.135 (.136)	.065	.990
	수평적 집단주의							.038 (.106)	.021	.354
	F값		4.579***			8.341***			7.246***	
R ²		.094			.216			.241		
수정된 R ²		.074			.190			.207		

*p<.05, **p<.01, ***p<.001

- | | |
|-------------------------|---------------------------|
| 1) 성별 : 0=남성, 1=여성 | 2) 학력 : 0=고졸이하, 1=대졸이상 |
| 3) 거주지역 : 0=제주시, 1=서귀포시 | 4) 직업 : 0=전문관리직, 1=비전문관리직 |
| 5) 종교 : 0=무교, 1=유교 | 6) 정기적 기부여부 : 0=예, 1=아니오 |

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표 4-10>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I은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이 때 일반적 특성은 기부지속성에 대해 15.7% 설명하고 있으며 ($R^2=.157$),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8.209$,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 변수($t=6.744$, $p=.000$)만 기부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기부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사회적 자본요소를 모델 I에 추가한 분석모형으로 기부지속성에 대해 34.4% 설명하고 있으며($R^2=.344$), 모델의 적합성은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F=15.846$, $p=.000$)으로 나타났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월평균 기부액($t=5.877$, $p=.000$), 신뢰($t=3.267$, $p=.001$), 사회참여변수($t=6.968$,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beta= .341$)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평균 기부액($\beta= .274$), 신뢰($\beta= .197$)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이어 문화성향의 하위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기부지속성을 38.3%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R^2=.383$, $F=14.138$, $p<.001$)로 파악되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성별($t=2.068$, $p=.039$), 월평균 기부액($t=6.160$, $p=.000$), 신뢰($t=3.118$, $p=.002$), 사회참여($t=5.670$, $p=.000$), 수직적 개인주의변수($t=2.614$, $p=.009$)가 기부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beta= .282$)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참여($\beta= .281$), 신뢰($\beta=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월평균 기부액이 높을수록, 신뢰수준과 사회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지속성에서도 기부추천의향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기부지속성이 높다는 것은, 여성은 일단 기부를 시작하면 기부 중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부기관에서 기부자 관리 시 성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0>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B (S.E)	Beta (β)	t	
상수	2.443 (.182)		13.430***	1.705 (.224)		4.803***	.153 (.305)		.501	
일반적 특성	성별1)	.009 (.059)	.008	.160	.097 (.053)	.078	1.818	.107 (.052)	.087	2.068*
	연령	.061 (.032)	.094	1.880	-.024 (.030)	-.037	-.797	-.037 (.030)	-.057	-1.224
	학력2)	.135 (.147)	.043	.918	.123 (.131)	.039	.942	.119 (.129)	.038	.925
	거주지3)	.070 (.070)	.047	.993	.022 (.062)	.015	.346	.066 (.062)	.045	1.073
	직업4)	.003 (.006)	.020	.438	.002 (.005)	.019	.455	.002 (.005)	.012	.308
	종교5)	.040 (.059)	.033	.680	-.084 (.054)	-.068	-1.558	-.093 (.053)	-.075	-1.751
	월평균 가구소득	-.012 (.020)	-.031	-.615	-.013 (.018)	-.032	-.706	-.026 (.018)	-.065	-1.447
	정기 기부여부6)	.414 (.337)	.058	1.229	.407 (.302)	.057	1.347	.458 (.298)	.064	1.537
	월평균 기부액	.167 (.025)	.349	6.744***	.131 (.022)	.274	5.877***	.135 (.022)	.282	6.160***
	사회적 자본	신뢰			.244 (.075)	.197	3.267**	.228 (.073)	.185	3.118**
사회규범				-.066 (.061)	-.062	-1.080	-.103 (.061)	-.097	-1.694	
사회참여				.326 (.047)	.341	6.968***	.269 (.047)	.281	5.670***	
네트워크				.112 (.062)	.101	1.812	.095 (.060)	.086	1.571	
문화 성향	수직적 개인주의						.209 (.080)	.138	2.614**	
	수평적 개인주의						.134 (.079)	.097	1.690	
	수직적 집단주의						.049 (.093)	.031	.533	
	수평적 집단주의						-.001 (.072)	-.001	-.015	
F값		8.209***			15.846***		14.138***			
R ²		.157			.344		.383			
수정된 R ²		.138			.323		.355			

*p<.05, **p<.01, ***p<.001

- 1) 성별 : 0=남성, 1=여성
 2) 학력 : 0=고졸이하, 1=대졸이상
 3) 거주지역 : 0=제주시, 1=서귀포시
 4) 직업 : 0=전문관리직, 1=비전문관리직
 5) 종교 : 0=무교, 1=유교
 6) 정기적 기부여부 : 0=예, 1=아니오

V.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개인기부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기부 경험자(n=530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의 기부지속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교일수록, 월평균가구 총 소득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기부할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거주지, 직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학력, 소득수준, 연령 등 개인적인 객관적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순·강철희(2002)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독교 등 종교가 있고 종교적 신념이 높을수록 기부노력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최은숙(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이 기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원준(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기부지속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자영·김두섭(2013)의 연구에서는 교육년수가 소득이나 연령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행위를 금액으로 측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횟수로 측정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기부에 자주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기부지속성과 하위변인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직업과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수로 나타났다. 전문·관리직 종사자 집단이 타 직업 집단에 비해 기

부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관리직이 타 직업군에 비해 월급수준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전문·관리직의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은 타 직업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부동기 부여, 기부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더라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실천적 나눔에 대한 상부상조와 수놓음 전통이 남아있어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기부금액 혹은 기부욕구가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신뢰와 사회참여 요인은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김난도(2010)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원활동 참여정도가 기부행동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가 기부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최은숙(2012)의 연구에서는 공식적 사회단체 참여수준이 기부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는 기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식적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자원봉사 행위 사이에서는 신뢰가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김영기(2012)의 연구에서는 기부지속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는 기관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몰입,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태도(신뢰성)로 확인되었다. 류방(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부동기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눈치, 집단소속감, 사회적 인정, 사회적 우호감, 소외감을 측정

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어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사회참여의 특성과 유사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요인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규범의 척도는 지역사회주민의 규범준수 여부, 지역사회 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지역 내 의사존중과 반영여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청렴정도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사회규범 인식의 높고, 낮은 차이가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기부가 사회규범 수준이 높고,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만 하는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규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기부행위를 독려하고,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면 기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는 기부지속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폐쇄적인 섬지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사회구조로서 사회적 평판이나 체면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성”이 중심가치이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 개인 고유의 가치, 목표, 통제, 자기주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게 되므로 기부에 대한 개인의 확고한 가치가 있다면 개인주의 성향이 기부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간의 차이는 문화에 따른 중심 가치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며, 집단주의 문화에서 “상호의존성” 내지는 “상호협조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내집단 관계 내에서의 상호공감, 자기억제, 협동, 양보를 통해 집단구성원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미국, 스웨덴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을 비교한 김선우·김난도(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이 기부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은 세 국가에서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홍승범·박혜경(2013)의 연구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겪는 지인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보다 균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교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이타심이 발현가능성이 높으며, 기부행동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타적 나눔이라고 할 때, 집단주의 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가 기부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면 제주지역 만의 독특한 문화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일면으로는 문화성향과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제3의 다른 요인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다 엄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류승아(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수평-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성향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평-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규석·신수진(1999)의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관은 약하게 견지되고 있으며, 수직-개인주의자와 수직-집단주의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 연구 결과를 일정부분 지지해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 사회적 자본만 투입했을 때보다 기부지속성에 대한 설명력을 2.5%-4.2%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부지속의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즉 문화성향은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사회적 자본만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성별, 연령, 사회규범 변수가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동시에 투입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 기부지속성과 기부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저연령일수록 기부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규범이 낮을수록 기부추천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수립 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1. 사회적 자본 중심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1) 신뢰 차원

분석결과, 신뢰는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사회참여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즉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성(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문제발생 시 특히 사회복지영역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고관우·남진열(2014)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떨어뜨리는 직접효과가 있다고 검증하였고, 최은숙(2012)의 연구에서는 공적신뢰수준은 공식적 사회단체 참여수준과 자원봉사수준을 매개하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는 가족, 친척, 이웃, 도지사,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개인적인 신뢰와 봉사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단체 신뢰, 정책결정 과정 신뢰 등이 포괄된 통합척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연구(정정호·김미희, 2008; 강철희 외, 2011; 박경수·김대원, 2012; 이원준, 2012)에서 다수 검증되었던 기부대상기관의 기관신뢰도뿐만 아니라 개인 신뢰 및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 유지전략과 함께 개인 간의 신뢰도 제고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분위기 확산이 기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관과 기부자와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조직관리 요인과 관련된 기관의 사명(mission)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최고 경영층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형성

되어야 기부자는 안심하고 기부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관리의 중요도가 기부자는 물론 비기부자에게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해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연희(2014)의 연구에서는 모금활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이나 SNS 등의 모금을 통해 조직이 변화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관에서는 모금의 목적이 사무실의 임대와 이전이라면 “자기 집이 이사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소소히 보여줌과 동시에, 단계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모금담당자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모금주체인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토착지도자나 여론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운영 혹은 감사에 참여하는 사회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정책결정과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규범 차원

분석결과, 사회규범은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규범의 척도는 지역사회주민의 규범준수 여부, 지역사회 내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여부, 지역 내 의사존중과 반영여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청렴정도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이러한 사회규범 인식의 높고, 낮은 차이가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기부가 사회규범 수준이 높고,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사회규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기부행위를 독려하면 기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사회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11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눔교육을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신청을 받고, 선정된 기관에 3회의 나눔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나눔교육 수료증을 배부하고 있으며, 2015년에만 20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40회(월 8회, 주2회 수준)의 나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학부모나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피드백도 받고 있다. 이러한 후속세대를 위한 나눔교육사업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정식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나눔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눔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된 후에는 마지막 단계로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 나눔교육을 정규화·공식화해 나가야 한다.

김주원외(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규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호혜성이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지윤(2013)의 연구에서는 확장된 차원에서 규범영역으로 볼 수 있는 책임감이 기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방(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체면이나 평판, 사회적 지위, 집단소속감, 우호적 관계 등의 사회적 동기요인은 개인기부자의 만족보다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관훈(2011)의 연구에서는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규범 준수, 자선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해소, 집단의사 존중, 공공부문의 청렴 유지, 민간부문의 청렴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준수, 사회단체의 규범준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규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혜성, 책임성, 지역사회 주민의 규범준수, 자선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공공·민간부문의 청렴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준수 등은 기부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기부행위 및 기부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규범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3) 사회참여 차원

분석결과, 사회참여는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성(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는 단지 이타성에서 연유하여 선을 행한다거나 세금혜택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최은숙, 2012), 사회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청받고 자극받아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최근 제주지역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 중 한 분은 평소 지속적인 기부는 했으나, 고액기부를 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어느 행사장에서 후배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가입하게 됐다고 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봉사단체 및 시민단체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행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참여 등을 포함한 척도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적극성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철희·주명관(2008)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경험과 나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이 비정기적 참여 및 정기적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숙(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단체의 참여가 기부 및 자원봉사를 증가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주민관계 참여라는 김경준 등(199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부자와 결연단체의 연결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요 간담회 및 토론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참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기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부자의 욕구, 반응, 동기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나아가 기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로 하여금 기관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부자가 됨은 물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기부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잠재적 기부자들에게도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구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4) 네트워크 차원

분석결과, 네트워크는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다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확대가 공동체의식 및 복지거버넌스 구축,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소진광, 2004; 진관훈, 2011; 박혜영 외, 2012)

이상도(2009)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는 상호간의 연계형태이며, 누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하는 상호간의 관계구조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의 사회자본은 문제해결능력 및 네트워크 효과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문제해결능력과 네트워크 효과성 간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인 관계로서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효과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네트워크 효과성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검증하였다.

진창남(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관, 소모임 및 동아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의 제휴를 통해 모금 및 기부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단체정보를 파악하여 이들을 기부자로 끌어들이는 기부확산 운동이 필요하며, 이들이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수감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잠재적 기부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파급되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부가 모두 해결하지 못하므로 지역사회 스스로가 부족한 자원을 개발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는 기부 및 나눔에 대한 전문

교육시설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하의 나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개인기부자 비율 및 아너소사이어티 비율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에도 나눔교육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부교육 전문기관이 나눔, 기부의 중심가치 실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설립될 필요가 있다.

나눔교육센터와 같은 전문조직이 설치된 후에는 제주지역 기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지역현안 사업은 타겟모금전략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기부추천의향과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기부행동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타적 나눔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정심, 상부상조 정신 등 이타적인 특징이 남성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전국 대비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타지역에 비해 독립심, 적극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여성의 근본적인 성향 및 제주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기부자 확충을 위한 타겟모금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성향 중심의 기부지속성 실천전략

1) 수직적 개인주의 차원

분석 결과, 수직적 개인주의는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지속성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평판, 체면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집단주의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선호가치가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한규석외, 1999; 류승아, 2010), 타인평가에서도 문화차이가 나타난다.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내-외적 정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성격이나 특질과 같은 내적인 요인을 과대하게 사용하여 행동을 설명하는 오류인 근본적 귀인오류라고 일컬으며, 독립적 자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며, 타인의 행동은 내부귀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정식, 2011).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 혹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 혹은 상황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관심의 초점을 타인이나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두므로,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홍승범·박혜경, 2013).

수직의 개념은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함을 뜻하는데 비해, 수평이란 용어는 대인관계에서 평등적 교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의 문항은 수직적 개인주의를 나타낸다.

특히 수직-개인주의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통해 형성되는 특성으로 비약적인 경제 도약의 상황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류승아, 2010). 제주지역은 1990년대 들어서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농업 등 1차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최근 외국인의 투자 증가 및 국내 이주자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비약적인 경제 도약의 상황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부가 일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부류는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 있기 때문에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다른 문화성향에 비해 기부를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2) 수평적 개인주의 차원

분석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는 정기적 기부여부,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추천의향, 기부지속성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추천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자아를 강조하는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추천의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문화성향이론이 도입된 초기에 집단주의로 분류되었던 한국의 문화성향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점수가 집단주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미국 대학생들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승아, 2010). 박현경과 이영희(2004)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20-30대의 연령에서 개인주의 성향, 구체적으로 수평-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등은 한국문화의 변화경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Triandis와 Gelfand(1998)에 의하면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집단(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인 위치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이들은 자신이 집단의 성향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기를 원하며 높은 자립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높은 지위를 지향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상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기부집단의 경우, 개인요인이 기부행동 경향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기관요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적극적 기부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부행동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부 후 행동과정에서 기부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도록 기부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향후 새로운 기부자 집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집중했던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4-50대 중장년층에서 수평적-개인주의 문화성향이 강한

20-30대 기부자 발굴을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적극적 기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캠페인의 진화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동정심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참여하고, 실감하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고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유니세프가 진행한 오뚝이(Roly-poly)캠페인에서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사진이 새겨진 오뚝이 모양의 모금함을 홍대 놀이터 등 서울시내 10곳에 설치해,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하단부가 무거워지면서 오뚝이가 점점 일어서게 했다. 이 캠페인은 모금함에 동전을 넣는 단순한 행위를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뜻 깊은 참여’로 만들었고, 1만명 가량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연령층의 기부확대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근거리무선통신(NFC), 정보무늬(QR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부캠페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한 독일의 구호단체 미제레오르(MISEREOR)의 ‘사회적 카드 긁기’(The Social Swipe)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등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한 뒤 기부참여자가 그 선을 따라 신용카드를 긁으면 2유로가 결제되도록 해 기부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디지털 화면에서는 참여자가 ‘긁은’ 선을 따라 아이의 손목을 묶은 밧줄이 끊어지거나, 빵이 잘라져 기부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활용은 기부 편의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 반응’을 통해 기부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재미까지 줄 수 있어 저연령층의 기부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들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특성이 녹아나는 기부확산운동이 필요하다. 이전의 기부 캠페인이 사람들의 ‘이타심’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이기심’에 호소하는 캠페인이 통하는 시대가 왔다. 기부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수직적 집단주의 차원

분석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는 기부지속성(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안디스(1995)의 문화성향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Chen, Meindi, & Hunt(1997)의 연구에 의하면 수직적 집단주의 지향의 사람들은 위계를 양산하는 차등적인보상시스템을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서로 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Triandis & Gelfand, 1998). 위계질서는 나이, 출신, 직위, 경륜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은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하위 서열에 있는 사람은 권리보다 의무를 많이 지게 된다(장수지 외, 2014).

한규석·신수진(1999)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성인 남녀를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적용한 전통적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수평-개인주의자(46%), 수평-집단주의자(28%), 수직-집단주의자(21%), 수직-개인주의자(5%)의 순으로 분포가 나타났으며, 비율 면에서는 개인주의자들이 집단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51% 대 49%).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성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류승아, 2010).

Courtney(2002)는 모금(fundraising)을 기부자의 재정 지원을 찾아내고(identifying), 배양하고(cultivating), 안정화시키는(securing)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신규 기부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후속 캠페인의 중요성을 잘 반영해준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기부중단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신규 기부자 발굴보다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용의 효율성분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기존 후원자가 신규후원자 영입의 중요한 자원(이원준, 2012)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설득력을 가진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집단주의가 대표적이며, 과거의 우리나라 문화성향의 주류를 형성했던 때에 반해 현대의 한국인들의 성향과는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 내 자신, 내 가족의 안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수평적 집단주의 차원

분석 결과, 수평적 집단주의는 기부지속성(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평적 사회관계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협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진관훈, 2011),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성향도 수평적 집단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지외, 2014).

표정민(2014)의 연구에서는 Singelis외(1995)가 제시한 문화적 성향 요인(수직-집단주의, 수평-집단주의, 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이 한국인에게 동일한 구성개념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직-집단주의와 수평-집단주의는 한국에서 하나의 집단주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직-개인주의는 경쟁적 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는 개성강조 개인주의 및 독립적 개인주의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허재홍(2009)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주의와 상관이 없고 집단주의와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측면에서는 수직차원과 상관이 없고 수평차원과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승범·박혜경(2013)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겪는 지인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보다 균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부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 및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나아가 반복적인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지속적인 통반장모임, 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아직까지 이웃에 대해 관심이 있고, 돈독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이웃의 어려움을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가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기부모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가 기부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평적 사회관계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성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성에 사회참여,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요인과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의 문화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특히 문화성향과 기부지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문화성향이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증평가 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제주지역에 한정하여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지역의 결과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후속연구에서 타 지역의 수준과 비교하여 진행된다면 제주지역의 기부지속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문화성향은 기부지속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고, 구체적으로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문화성향과 기부지속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로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적인 결과치이기 때문에 개별 대상자의 문화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제주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성향의 특징인지, 혹은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의 환경적 맥락이나 표집 당시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엄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기부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부기관들 간의 기관특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력에 대한 탐색이 간과되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시대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사회적 자본, 문화 성향, 기부지속성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 1-30.
- 강철희. (2004). 자선적 행위 조사 연구에 대한 소고. 「한국비영리연구」, 3(1) : 5-43. 」
- 강철희·김유나·조주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 205-235.
- 강철희·변은지·구지윤. (2011).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 사회복지영역과 비 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8(1) : 247-276.
- 강철희·주명관. (2007). 기부대상 영역에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2) : 89-137.
- 강철희·주명관. (2008). 한국인의 기부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 정기적 참여, 비정기적 참여 및 미 참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1) : 1-38.
- 강철희·최명민·김수현. (2012).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2) : 57-82.
- 고관우·남진열. (2014).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본이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 : 223-249.
- 고이경. (2004). 「기부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2008). 『20대 심리학: 미래의 나를 완성해주는 20대를 위한 인생강의』 . 서울: 덤하우스 코리아.
- 곽현근. (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 237-267.
-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 93-22.

- 김강호. (2010).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도농간 비교.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2) : 81-97.
-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3(2) : 211-232.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완. (2013).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당진시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윤. (2009).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9(4) : 38-64.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 63-95.
- 김선우·김난도. (2010). 한국, 미국, 스웨덴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 비교: 트리안디스의 문화유형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3(1) : 61-80.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 67-88.
- 김양희. (2013).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김정우. (2014). 자선모금기관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 89-113.
- 김연수·이광석 .(2011).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3) : 25-51.
- 김영기. (201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자의 기부지속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 (2003). 「온라인 기부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통계적, 사회심리적, e카드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영·박수범·김병수·박태규. (2006). 포아송 분포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기부 횟수 자료 분석. 「응용통계연구」, 19(1) : 1-12.

- 김자영. (2009). 「기부 만족도가 지속적 기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만족도와 욕구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 401-430.
- 김정덕·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 193-226
- 김정식. (2011). 자기-타인 평가에서 자기해석과 종결욕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2) : 307-329.
- 김정훈. (2011).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 태도 유형이 기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 819-829.
- 김종미. (2004). 「중산층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 창출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M여성단체 D지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원·김용준. (2008). 자선단체 기부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7(3) : 629-658.
- 김지현. (2014). 개인 문화성향에 따른 정보인식과 태도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 59-76.
- 김지훈·강육모·문수열.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 25-50.
- 김지혜·정익중. (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 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 133-158.
- 김해숙. (2008).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은영·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 63-93.
- 노연희. (2011).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관리 및 조직에 대한 기부자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 1-31.
- 노연희. (2014), 비영리조직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분석 : 모금캠페인 사례

- 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7 : 65-122.
- 류기형·남미애·박경일·홍봉선·이경희·장중탁. (2009). 『자원봉사론 3판』, 양서원.
- 류방. (2013).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만족과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 1-25.
-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 169-183.
- 민기. (2006). 사회적 자본의 정책영향: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 7-24.
- 박경수. (2010).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서울시복지재단」.
- 박경수·김대원. (2012).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시민사회와 NGO」, 10(2) : 221-246.
- 박선희·박병현.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 85-123.
- 박숙미. (2002).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강혜규·이준영·정진경·한동우·박소현. (2009). 사회자본과 민간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와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순·고동완. (2010).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8) : 33-55.
- 박용치·오승석·송재석. (2009). 『조사방법론』, 서울: 대영문화사.
- 박태규. (2007).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재정포럼」, 131(0) : 2-4.
- 박태규·윤병호·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

- 구」, 1(3) : 79-100.
- 박현경·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 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4) : 571-596.
- 박혜영·김정주. (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 47-66.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능력: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 175-196.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 219-237
- 박희봉. (2009). 『사회적 자본 :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 변충규. (2014). 개인 기부자의 기부동기 및 의례화가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3(1) : 59-8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2013 연간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강화방안. 제249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제257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CEO Information 722.
- 서순탁. (2001).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 : 99-109.
- 소진광. (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4(1) : 29-47.
- 소진광. (2003).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성남발전연구」, 3 : 75-117.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 80-118.
- 소진광·송태수·임경수·안혁근·윤두섭. (200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푸른솔.

- 소진광. (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송정민. (2008). 「개인의 기부유형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름다운재단. (2010). 「2009 한국인의 기부지수」.
- 안병일. (2009).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용희. (2003). 노블리스오브리주 - 현대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벤처기업협회」, 39(0) : 10-10
- 오혜진. (2002). 「자선적 기부참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민병배. (2008).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4(1) : 397-407.
- 우수명. (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인간과 복지.
- 우영지·이기학. (2011). 여대생의 문화성향 군집에 따른 다중역할계획태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2) : 406-425.
- 유수진. (2000).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용식·손호중. (2009).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8(2) : 27-57.
- 유홍준·홍훈식. (2009). 집단참여가 사적 · 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42(2) : 55-77.
- 윤용근. (2004). 「사회복지관의 기부자 개발 및 유지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달곤. (2005). 지방자치 생성과 발전. 「지방행정」, 54 (621) : 17-25.
- 이동원. (2009).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722호.
- 이동영·변은지. (2007).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자선모금기관의 기부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

303-325.

- 이상도. (2009). 「사회복지사의 사회자본이 문제해결능력과 네트워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철·홍환·박언하. (2010). 정기적 기부 및 자원봉사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 117-149.
- 이상호. (2009). 「기부경험 및 의도에 따른 집단별 기부행동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록. (2001). 「자원봉사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준. (2012).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한. (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 76-93.
- 이현우·이지호·한영빈. (2009).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 1449-171.
- 이희정. (2006). 공동모금 개인기부자의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김수영·Kobayashi, E. (2014).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 1-27.
- 전지연. (2008). 「개인기부자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환. (2003). 한국농촌의 미래. 「한국농촌사회학회」. 13(1) : 51-83
- 정기환·심재만·최경은. (2006).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 (2005).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대인신뢰 및 유사성 지각의

-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김미희. (2008). 기부중단자의 특성 및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 241-266.
- 정호영. (2006).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주·박태규. (2007).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12 : 65-88.
- 진관훈. (2011). 사회적 자본이 복지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관훈 (2011). 제주지역의 사회적 자본 연구. 「제주도연구」, 35 : 67-117
- 진창남. (2012).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출·김병식·김보흠·배정환·안성호·엄태석·이정주. (2006). 『지역 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 최은숙·이석호. (2011).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복지학회」, 38 : 115-140.
- 최은숙. (2012).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기부, 자원봉사와의 관계: 공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 97-134.
- 표정민. (2014).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과 창의성 평가: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에 따른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그리고 자기 및 타인평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 한규석·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13(2) : 293-310.
- 한덕웅·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

- 국심리학회지」 17(1) : 49-67.
- 한민·이누미야·김소혜·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 49-66.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혜란. (2012), 「한국의 민간 기부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기부의 지속성과 동료효과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 (2009).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7(2), 39-54.
- 홍승범·박혜경. (2013).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 125-150.
- 홍영란. (2007). 사회적 자본 지표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현영섭·박인섭·정혜령. (2007). 사회적 자본의 정책 의제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경수. (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764-1772.
- 황창순·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Adler, Paul S. & Kwon, Seok-Woo. (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 Burtworth Heinemann.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 Chen, C., Meindl, J., & Trindis, H. (1997). *Testing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llectivism: A study of rewards allocation preferences in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23-43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95-120.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Conway, L. G., Sexton, S. M., & Tweed, R. G. (2006). *Collectivism and governmentally initiated restriction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is across nations and within a nation*.
- Courtney, R. (2002). *Strategic Management for Voluntary Non-profit Organizations*, Routledge, London.
- Desmet, P. & Feinberg, F. M. (2003). *Ask and ye shall receive: The effect of the appeals scale on consumers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349-376.
- Esser, H. (2008).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D. Castiglione, Van Deth, J. & Wollebm, G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 Press, 22-49.
- Feldstein M. & Clotfelter C. (1975).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 1-26.
- Fiske, A. P. (1992). *The four elementary forms of sociality: Framework for a unified theory of social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99(4), 689-723.
- Flanagan, Joan. (2000). *Successful Fundraising*, New York: McGraw-Hill Co. Inc.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구승희 역 (1999),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 Glazer, A. & Konard, K. A. (1996). *A Signaling Explanation for Char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1019-1028.
- Grootaert, C. & Bastelare, T(2002).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An empirical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 Harbaugh, W. T. (1998), *What do Donations Buy? A Model of Philanthropy Based on Prestige and Warm Glow*, Journal of Public Economic, Vol.67, 269-287.
- Hanifan, L. J.(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r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Hibbert, S. & Horne, S. (1996). *Giving to charity: questioning the donor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3(2). 4-13.
- John Field. (2003). *Social capita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
- Kotler, P. (1982). *Marketing Management*.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 Ohashi, R. (2003). *Self-control scale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210-25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Lean, Schultz, Steger, (2002). *Social Capital*, New York Univ. Press.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3, 121-144. Beverly Hills, CA:Sage.
- Narayan & Cassidy. (2001). *A Dimension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March, 49(2), 59-102.
- Payton, R. L. (1983). *Philanthropy as a right*. www.paytonpapers.org.
- Plaut, V. C., Markus, H. R., & Lachman, M. E. (2002). *Place matters:*

- Consensual features and regional variation in American well-being and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60-184.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 24, 1-24.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Radley, a. & Kennedy, M. (1995).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Human Relations, 48(6). 685-709.
- Reece, W.S., (1979). *Charitable Contributions: New Evidence on Household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69, 142-51.
-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70(2).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 Rosso, H. A. (1991). *Achieving excellence in fund raising: A comprehensive guide to principles, strategies, and methods*. San Francisco, C. A: Jossey-Bass Publishers.
-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 Sargeant, A. & Woodliffe, L. (2007). *Gift giving: An interdisciplinary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2(Nov.). pp.275-307
- Seg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ia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pp. 40-58.
- Seymour, Harold J. (1966). *Designs for Fund-Raising*, New York: McGraw Hill
- Sharpe, Robert F. Jr. (1994) *Successful Fundraising in Challenging Times*, Presentation to American Cancer Society National Fundraising Leadership Conference, Orlando, Fl.(September).

- Shelly, Laura and Michael. Jay, Polonsky. (2001). *Do Charitable Causes Need to Segment Their Current donor Base on Demographic Factor?: an Australian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Boluntary Sector Maketing, 7(1), 19-2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D. P.,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 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uh, E. M., Diener, E. D., & Updegraff, J. A. (2008). *From culture to priming conditions self-construal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3-15.
- Svendsen & Svendsen. (2004).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egar.
- Stone, C. (2001). *Regime Politics*, Harmondsworth : Penguin.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60-95.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West view Press.
- Triandis, H. C.,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06.
- Triandis, H.C. & Gelfand, M. J. (1998). *Cover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 World Bank. (2002). *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s?*
- World Bank. (2004). *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s?*
-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 I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iour, 8, 53-11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Inclination on the Continuity of Individual Don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e factors on the continuity of individual donations utilizing social capital and cultural inclination that can represent local society's unique life style and its culture.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fact that individual donations can be influenced by not only individual factors such as donation intention and donation motives but also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cluding local society's trust, norms and participation or cultural inclination.

Preceding researches have understood donations as simple charity or passive service to other people, so they have set variable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nd motivation factors. Therefore, to approach the measurement indicators of donation continuity from social relations' point of view, this study subdivided indicators as frequency of donations, amount of donations, intention of donations continuity, intention of donations recommendation. And based on Putnam's social capital index and Esser's social capital structure chart, this study subdivided measurement indicators of social capital as trust, social norms,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 which have showed in various preceding researches.

In terms of cultural inclination, this study utilized four cultural inclination factors(vertical individualism, horizontal individualism, vertical collectivism, horizontal collectivism) developed by Singelis and Triandis(1995) and standardized by Kim Gi-beom(1996).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 that this study can secure higher reliability of measurement with its comparatively high rate of individual donations and formation of a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 local characteristic as an island which has its own unique social network.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general residents over 18 living in Jeju who have donated before. I distributed 550 surve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530 data except unanswered and incomplet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the more the age, education level and monthly average income are higher, and one has Confucian belief and donates regularly, the higher their continuity of donations.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residential district, jobs. Meanwhile, the more monthly average income is higher, the higher the frequency of donations, continuity of donations, intention of donations continuity, intention of donations recommendation. However, the amount of donations does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s result is come out by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Jeju has long had mutual aid tradition called *suneulem* so Jeju people try to help their neighbors in need even though they are not wealthy enough.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at Jeju's mutual aid characteristic influenced the fac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donations and intention of donations between the highly income household and low income household.

Second, among the factors of social capit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are turned out to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continuity of donations. Namely, it turned out that the more the trust level and social participation level are high, the higher the frequency of donations, amount of donations, intention of donations continuity, intention of donations recommendation and donations continuity. Meanwhile, social norms do not

influence the donations continuity. The index of social norms of this study consists of norm observance by local residents, discrimination depending on the region of origin in local society, respect and reflection of opinion in local society, recognition of integrity degre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a useful result in understanding the fact that, in modern society, donations are not difficult act to be done only by those who has high social norms and social status, but a general act done by everybody.

Third, among cultural inclination factors, vertic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the donations continuity. This fact does not fit preceding research results (Kim Seon-woo · Kim Nan-do, 2010; Hong Seong-beom · Park Hye-kyeong, 2013) that the more the collectivism tendency is strong, the higher the chance of expression of altruism. And if donations are altruistic sharing to social value, collectivism tendency highly influences on the continuity of don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result is caused by Jeju's own unique cultural inclination, but this may be the point that needs further investigation whether there is another factor that can explain cultural inclination and the donations continuity.

Fourth, according to the analyzing resul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inclination on donations continuity, those two factors boost explanation power of donations continuity 2.5%-4.2% than analyzing only with social capital. Especially, they increase the explanation power of donations continuity the highest. It confirms that cultural inclination is a useful variable in explaining donations continuity.

Based on those positi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strategies encouraging donations continuity with social capital and cultural inclination's points of view.

First, as preceding researches lack social capital's various organizing factors and cultural inclination as influencing factors on donations continuity

and most of the researches only used donor'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credibility of donating organization as variables, this result can offer a new perspective to related researchers.

Second, as influencing factors on donations, this study took note of social relations and cultural aspects beyond the preceding researche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that premise dualistic human nature of altruism and selfishness.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erms of expanding variables even to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ird, through this research, it verified that the more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rate, vertic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are high, the higher the donations continu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social capital's sub-components and cultural inclination a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donations continuity. Especially, as it is confirmed that cultural inclination is a useful variable in explaining donations continuity, individual cultural inclin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courage donations continuously.

Key words: social capital, cultural inclination, continuity of donations, frequency of donations, amount of donations, intention of donations continuity, intention of donations recommendation

부록: 설문지

--	--	--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
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으로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다소 귀찮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의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연구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서영숙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남진열

※ 아래의 각 질문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자본

[신뢰]

1.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구 분	전혀 신뢰 못함	대체로 신뢰 못함	보통 이다	대체로 신뢰함	전적 으로 신뢰함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친척	①	②	③	④	⑤
3 이웃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①	②	③	④	⑤
5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7 도지사	①	②	③	④	⑤
8 도의원	①	②	③	④	⑤
9 국회의원	①	②	③	④	⑤
10 시청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11 도청공무원, 중앙부처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①	②	③	④	⑤
13 도청의 정책결정 과정	①	②	③	④	⑤
14 시청의 정책결정 과정	①	②	③	④	⑤

[사회규범]

2. 귀하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주민은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사회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사회 공공부문(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자 등)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사회 민간부문(기업, 금융기관, 자영업 등)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지역 자치단체는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지역사회 각종 단체, 기관, 조직들은 대체로 법규를 준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참여]

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십니까?

내 용		전혀 참여 안함	대체로 참여 안함	보통 이다	대체로 참여함	적극 참여함
1	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2	종교단체(기독교, 카톨릭교, 불교, 기타 등)	①	②	③	④	⑤
3	친목단체(향우회, 친목회, 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참여 안함	대체로 참여 안함	보통 이다	대체로 참여함	적극 참여함
4	직업단체(상가번영회, 노동조합 직 능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민단체(환경단체, 비영리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정치단체(정당)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 행사(모임, 축제, 문화 행사 등)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 회, 토론회 등	①	②	③	④	⑤

[네트워크]

4.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지역사회 주민들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회단체(종교, 스포츠·여가, 노조, 정당, 교육·문화·예술, 전문협 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문화성향 관련

5.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8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경쟁은 삶의 원칙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기부지속성 관련

6.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해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기부와 관련한 동아리나 모임에 대부분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부에 대해 다음번 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앞으로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고액기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기부활동 참여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충실한 기부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장기적 성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권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의 좋은 점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다른 사람이 기부에 관한 기부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이 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기부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이상

4.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5.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판매직 ⑤ 생산직
⑥ 자영업 ⑦ 농·어·축산업직 ⑧ 주부 ⑨ 학생 ⑩ 무직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무교

7. 귀하의 지난 2014년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8. 귀하께서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8번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분들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매월 평균 얼마를 기부하십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3만원 미만 ③ 3~5만원 미만
④ 5~7만원 미만 ⑤ 7~9만원 미만 ⑥ 9~11만원 미만
⑦ 11~13만원 미만 ⑧ 13~15만원 미만 ⑨ 15만원 이상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랑합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